



대전범시민협의회, 선거구 증설 촉구 청원서 전달

서 대변인 “153만 시민 염원... 훼손된 지역 표가치 제고 절호의 기회” 충남도, 동아시아 3농 공유의 장 이끌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선거구 증설 촉구 153만 대전시민 청원서’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이에 대해 지난 15일 서희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153만 대전시민의 선거구 증설 의지와 여망이 온전히 전달되길 기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편차 2:1 결정에 따라 촉발된 이번 선거구 개편은 그간 훼손된 대전시민의 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표의 등가성 회복, 선거구 증설이라는 대전시민의 의지와 여망이 온전히 전달되길 기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편차 2:1 결정에 따라 촉발된 이번 선거구 개편은 그간 훼손된 대전시민의 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결정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등 다양한 획정요인 가운데 인구가 첫 번째 척도임을 공표한 것이라는 서희철 대변인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농격차, 지역불균형도 일리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의원 선출이 아니라 국가의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 의해 보완될 지점이며 현재결정을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요구했다.

서희철 대변인은 또 “대전시는 이미 지난 18·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부터 선거구 증설노력을 지속했지만 결국 실패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고 회상하면서 “대전시는 지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에 따른 선거구 증설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고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증설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희철 대변인은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3만 2715명으로 선거구 상한인구인 28만 명을 5만 명 이상 넘어섰다”고 강조하고 “유성구의 증설 여부

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가능 하는 시금석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범시민협의회 공동대표단 선거구 증설청원서 제출 범시민협의회 공동대표단(상임대표 정교순)은 15일 시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대표단은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청원서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전달에 앞서 선거구획정위를 방문,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다시 한번 153만 대전시민의 의지와 여망이 전달되길 바라며 새정치연합 대

전시당 또한 시민속원인 선거구 증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선 기자

지방농정 매개 한한 · 중 · 일 교류 협력관계 구축 등 마련

‘2015 동아시아 3농포럼’이 15일 ‘지방정부 대표토론회’이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안희정 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아라이 쇼고(荒井 正吾) 나라현지사와 가와가츠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 한성하이(韓興海) 중국 연변주 상무위원회 부주장 등 1000여명이 참석 가운데 한 · 중 · 일 지방정부 대표 6명이 무대에 올라 토론회 서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은 각 국가 및 지방의 농업 · 농촌 · 농민 등 3농 분야 문제점과 정책 사례, 경험, 비전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어느 정부든 농업 · 농촌 · 농민이 가장 중요하며, 농업의 경제적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 개량이나 먹거리 안전, 친환경 생태 전환, 농업 · 농촌의 생태적 가치 보전, 국가 보조금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똑같은 약 처방이라도 그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농업 문제

도 정부와 민간, 연구자들이 어떻게 치방하고 협력하는냐에 따라 그 차도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며 농업 · 농촌 ·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는 “일본 농촌은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나라현의 경우 농업인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농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산업적인 비율은 크지 않지만, 모든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산업으로, 앞으로 ‘양’과 ‘질’로 방향성이 나날 것이며, 농산물 수출입 등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첨단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곳으로,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농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농업은 경제적 관

점으로부터 보면 낙후 산업이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산업”이라고 강조한 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근교 농업,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는 관광농업,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산업 연계형 농업 등이 도농 통합 세종시 농업 정책의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가와카즈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는 “농업은 물 보전과 경관 보전, 문화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농촌 · 농업 · 농민은 다면적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하이 연변주 부주장은 “연변의 80%는 산림지역으로, 이번 3농포럼은 연변의 생태 보호와 농업 발전 방안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인세(文引學) 산시성 농업청 부청장은 “앞으로 농업은 물류 혁신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판매 제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생태 자원을 활용한 도시인들의 농업 체험 등을 통해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토론회에서는 치우저치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의 3농정책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으며, 3농정책 포럼은 ▲지속가능한 농업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농민 중심 농정 거버넌스 등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편 이번 3농포럼은 한 · 중 · 일 지방자치단체들이 21세기 농업 · 농촌의 미래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농업 · 농촌 · 농민 정책 발전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지방 농정을 매개로 한 한 · 중 · 일 3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내포=이지용기자

충청권 학생들 상대적 ‘약골체력’

대전, 작년 하위등급 학생비율 전년 대비 3.2% 증가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학생들의 체력이 타 시도에 비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국경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학생들 가운데 체력이 약한 하위등급(4~5등급)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013년 4~5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체력이 약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2014년은 3.2% 증가한 9.3%로 7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2013년 14.3%로 2위였지만 2014년은 3.9% 감소한 10.4%를 기록, 5위로 3단계 내려앉았다.

충남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8.9%, 8.8%로 2년 연속 6위를 차지했다. 충북은 2014년 9.4%를 기록해 2013년 10.2%에 비

해 0.8% 포인트 낮아졌지만 전년과 동일한 8위를 기록했다.

2014년 하위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8.2%),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4.6%)로 나타났으며, 5위(세종), 6위(충북), 7위(대전), 8위(충남) 등 5위부터 8위까지 충청권 지역들이 나란히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등급 학생의 전국평균은 8.9%로 집계됐고, 충남을 제외한 대전, 세종, 충북 모두 전국평균보다 0.5~1.5% 높았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운동부족

으로 인한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가 심화되자 교육에서 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 근지구력, 체지방, 순발력 등 다섯가지 항목을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한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부담, TV 시청,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해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교육청의 체육시설 확충 노력, 단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충청권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백제문화진흥도 1540주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제61회 백제문화제에 초대합니다.

백제

백제 문화의 정수

2015. 9. 26 (토) ~ 10. 4 (일)
공주시 신관금강공원, 공산성 일원

충청남도 · 공주시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 공식행사(개막식 · 불꽃쇼) : 9. 26.(토) 19:00~21:00 / 공주 금강산관광주무대
- 퍼레이드 교류왕국 : 9.27.(토), 10.3.(토) 19:30 / 금강산관광원
- 풍선성퍼레이드 : 9. 28. (일) 18:00 / 동행로-중동사거리-구태미널
- 백제동불향연/실경공연/공주시주재관 : 9.28(토)-10.4(일) / 금강미르섬, 금강산관광원
- 충남교향악단 특별공연 : 10.1.(목) 19:00~21:00 / 금강산관광원 주무대
- 어린이왕국 '무형' : 9.29(토)-30(일), 10.2(금)-10.3(토) 4회 16:00 / 문예회관
- 행사기간 중 무료입장 : 공산성/무형향연/석장리 박물관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 전국 398개소”

서울 86개로 가장 많고, 울산 58개, 부산 48개, 창원 41개, 대전 40개 순 정용기 의원,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 나서야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전국에 3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 상층 불법주차가 102건,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77건, 사유로는 골목길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 70건 등이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은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진출 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주차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내 주차문제의 경우에도 사유 재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행정기관이 강제할 근거가 없다.

지역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아파트는 서울시가 86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울산 58개, 부산 48개 단지가 뒤를 이었다. 특광역시 293개소로 도지역 105개소(창원 41개소 포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진입 곤란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강남권(서초, 강남)에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비강남권, 특히 강북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빈부 격차가 화재안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아파트 화재사고는 13,700건이 발생했으며 176명이 목숨을 잃고 1,317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약 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당시에도 진입로와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어려움을 겪으며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결국 헬기 4대 등 장비 70대와 소방관 160여명을 동원한 끝에 2시간이 지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진입 불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입주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하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교육은 주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방 교육은 화재발생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요령, 소방시설 작동법, 작동요령, 대피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입주민들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아파트와 같이 인구가 밀집한 곳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신탄진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은 15일 신탄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신탄진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박병철 의원을 좌장으로 역솔루타워 입주주민대표위원회 객민석 기술이사, 시립유치원연합회 김득수 부회장, 신탄진초등학교 김미혜 학부모회장, 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 신탄진초등학교 이기홍 교감, 대전시교육청 편서향 유아교육담당장학관 등이 참여하여 신탄진지역 학부모들과 유아들에게 부담이 적고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등에 토론이 이뤄졌다.

새누리 충남도당, 여성위원장 및 차세대 위원장이 · 취임식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제식)은 16일 오후 2시 당사 1층에서 도당 여성위원장 및 차세대위원장이 ·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제식 충남도당 위원장과 이예리사 중앙여성위원장 등 비롯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여성위원회 및 시·군여성지회장, 외부 초청인사 등 200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 · 취임식은 지난 1년 동안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를 이끌며 소의

된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김혜정, 서경옥 여성위원장과 장영주 차세대 위원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을 시작으로, 새로 취임하는 정영자 여성위원장, 정종숙 차세대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제식 도당위원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봉사가 우리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미 우리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를 이끌어 오

이 · 취임식이 또 한 번의 여성결집을 이루었고, 여성당원의 화합으로 힘을 모아 2016년 총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행복전도사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공주시의회, 충남 이 ·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회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선수단에게 필승의 의지 전달



공주시의회(의장 이해선)는 9월 14일에 당진시 고대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충청남도 이 ·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방문하여 공주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시덕 공주시장,

이해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15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주시를 대표해서 참가한 공주시 이 · 통장협의회 남창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선수들에게 필승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해선 의장은 “이 · 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일꾼으로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참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5회째 열리는 이번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15개시군 2000여명의 선수가 참석하였으며, 각종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공주=정상범기자

이명수 의원, 배방읍에

협업지구 지원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4일,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아산시 배방읍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처 협업지구(도시재생사업)”로 선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해당사업(후보지역 40개 중 5개시 신청) 전국유일의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처 협업지구 사업(도시재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60%)이 지원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창출 등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까지도 아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해 산적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배방읍이 부처협업지구(도시재생사업)로 선정된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아산지역 현안 및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관한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운영위원장 고무열은 노동개혁이라는 의제에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21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장 4층에서 개최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장나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 국민 여론과 노사의 찬반대립이 첨예하여 대승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함에 따라 핵심적으로 다루진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도 단순한 취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젊은 세대가 해쳐 나가야 할 결혼과 출산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계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수 및 정치인과 사회단체인 그리고 대학생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고무열 운영위원장은 전망했다.

이정복기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그동안 청문회 결과 냉철하게 평가... 향후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마련



대전광역시의회(김인식 의장)는 1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2) 주 관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 이후 4번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그동안 청문회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동섭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간담회를 4번을 실시하였으나 인사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어 냉

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문위원 선정 시 의회내부의 의원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구조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지속가능한 인사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문위원 선정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의 참여방안 마련 등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김정환기자

민병주 의원, 세종시 이전 관련 확고한 신념 가져야

미래부 장관에 적극적으로 일 추진할 것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사진) 의원(새누리당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장관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의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훌륭한 인프라를 한껏 활용하여 시

너지를 발휘할 때만이 우리 과학기술계가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장관은 정부가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려서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칙과 확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거듭 미래부가 세종시 이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세종시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며, “부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정부가 논의해 결정하고 미래부는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복도시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6개 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만큼은 이전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미래부 세종시 이전 관련 행자부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는 정종성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부의 과천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미래부가 이전 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해 국무조정실 추경호 실장은 “세종정사의 수용능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 부처를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 백제 역사 홍보맨 자처

15일 미국 뉴저지주의회 관계자 등 백제 역사 우수성 알리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공주)이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5일 공주시 공산성에

서 미국 뉴저지주의회 고든 엠 존슨 하원의원을 비롯한 팰파시 이종철 부시장, 크리스토퍼 정 시의원 등을 만나 백제역사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조 의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역사유적지구 그 범위에 가려졌던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그 아쉬움을 떨치고 백제 문화의 위대함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미국 뉴저지 시민들에게 백제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충남도민은 뉴저지 문화를, 뉴저지 시민은 충남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양 도 · 주가 공동 발전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고든 엠 존슨 의원은 “백제의 섬세함과 정제성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공산성 주변의 자연과 풍경 등이 경이롭다. 이 광경을 뉴저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최선경 의원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 피해자는 주민”

15일 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서 주장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선경 의원은 15일 열린 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월산리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장 건축허가 문제와 이장들 도모르게 진행되는 각 읍면의 미구입식 공사 등 군정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며 홍성군의 편익적 행정, 불통의 행정을 지적하고 소통

의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집행부가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곤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 한 마디 보고도 없었으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이번 일은 군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풍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얼마나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명예감독관제를 부활해 달라고 이장님들이 의회를 찾아왔잖나”며 “소통하지 못함으로 빚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사현황을 구두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2015년 도 공사는 모두 307건으로 그 가운데 75건이 조례를 위반한 채 이장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이세형)는 15일 제21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9년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이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담보상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2015년 신탄진 촉진지구계획 변경으로 구역 축소 및 해제로, 기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빠진 석봉1, 3구역에 대한 도시 균형발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확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보낸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내포=이지용기자

평교사 교장 2% 무늬만 교장공모제

'유능한 인재 선출' 도입 취지 무색... 교장승진 경로로 활용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모교장 가운데 94.4%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공모교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평교사'는 전체 공모교

장 1,770명 가운데 36명으로 2%에 불과했다.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겠다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했다.

가장 많은 174명은 '교감'으로 무려 75%를 차지해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경로로 활용된 것이다. 또, 기존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이 된 경우도 151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한 이유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지난 2011년 9

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자, 교육부는 그 해 12월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버렸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은 중심으로 교육부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이를 강행했고, 지난 2014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15%제한 규정이 '교장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화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율을 상향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6 제2항에 따라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는 최소 7곳 이상은 돼야 최소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형 공모 실시학교가 7명 미만인 지역은 태생적으로 평교사 교장공모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지원율도 매우 낮다. 올해 2학기 마감된 공모현황을 보면, 243명 모집 가운데 385명이 지원해 1대 1.58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내부형 교장의 경우 15% 제한 규정에 따라 아예 평교사들은 지원 기회를 얻기 힘들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해야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

배재정 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의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진정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특허청, 장사에만 몰두...부실 특허 양산

김제남 "비심사·심판인력을 줄이고 고유업무인력 늘려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5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청이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평가기에만 급급하고 고질적인 부실 심사 관행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심사 1건 당 처리시간'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특허 심사시간이 8.7시간으로 미국의 28.5시간, 유럽의 42.6시간에 비해 많게는 5배의 '빠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30건을 처리하며 유럽의 47건, 미국의 70건 처리에

비해 이 또한 5배 가까이 많다.

특허 1건당 심사처리 시간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특허심사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처리시간이 빠르고 심사관이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부실 심사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지표 모두 지난 10년간 유럽에 비해 5배 전후로 높은 실정으로 '양질의 특허' 심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빠르고 많은 심사는 결국 부실 심사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특허 무효 인용율(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은 53.2%(2014년)로서 이는 특허 심결을 하면 절반 이상 무효로 나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드러낸다. 특허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허청 인력 부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

특허청 인력 중에서 특허청 고유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 그의 인력은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 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인력으로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부업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직원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심사시간 단축을 특허청의 정책 목표에서 제외하고, 비심사·심판인력을 줄이고 고유업무인력을 늘리는 안을 마련해야만 특허청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대전, 지난 4년간 가출인 접수 증가

가출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방청별 가출인 접수 현황'을 분석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가출인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215,315건의 가출인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4년간 가출인 접수 건수는 2011년 48,372건, 2012년 50,000건, 2013년 57,751건, 2014년 59,202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2011년 대비 108,302

건이 증가해 2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위기, 인신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증가 등 가출 증가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범죄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가출인 수를 줄일 수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기자

새누리당 서산·태안 내년 총선 출마자는 누구?



김제식 이기형 문재풍 성일종

인지도가 변수로 작용... 공천 치열 전망

내년 총선을 7개월가량 남겨 놓고 서산·태안 국회의원에 출마할 인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제식 국회의원·이기형(전 한라당)서산태안당협위원장·문재풍 새누리당(서산·태안)전당협위원장·성일종 고려대학교 수석이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이들은 서산·태안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얼굴 도장을 찍고 있어 새누리당 예비후보경선 참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김제식 국회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이 공천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약재가 있어서 공천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경선 사건과 지역민과의 욕설로 인한 고소고발등 약재로 인

해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치생활 1년 동안 지역민심을 살피는 보좌관과 비서관을 교체한 점도 시민들의 민심이 싸늘하다. 이기형(전 한라당)서산태안당협위원장의 경우는 시민들 사이에 언제 이기형인가 이번에는 공천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인지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풍 새누리당(서산·태안)전당협회의회위원장도 대통령 선거당시 기여한 공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가 문제로 보인다. 성일종 고려대학교 수석의 경우는 현인 성완중 전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 조직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민심은 싸늘해 보인다. 성완중 쪽지로 인해 총청에 맹주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상처를 받은 것이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4명중 인지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인물이 없어서 공천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총청권의 경우 전박 성향의 인사가 공천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속에, 이기형(전 새누리당)서산·태안당원협위원장과 문재풍(전 새누리당)서산·태안당원협위원장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산=특별취재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우표 발행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해 우표 4종 100만장(종당 25만장)을 16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표 디자인은 대회 마스코트인 '헤라온'과 '헤라오니'를 비롯해 장애물경기·고공강하·사격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또 특수인쇄인 유광(Glossy Varnish)을 적용해 반짝거리는 효과가 있으며, 단순하고 강렬한 색상으로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편, 11개국 8천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경북 8개 시·군에서 10일간 개최(10.2~11)된다.

백제 라시 레어나라

제61회 백제문화제

The 61st Baekje Cultural Festival

2015 9.26(토) ~ 10.4(월)

충청남도 부여군·공주시

● 동 정 ●●●

대전 식생활교육 체험박람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6일 오전 11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리는 2015 대전 식생활교육 체험박람회 참석.

새마을지도자지역강화연찬회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16일 오전 11시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리는 2015 대전 식생활교육 체험박람회 참석, 오후 7시 30분 통영 금호리조트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참석.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박용갑 구청장= 16일 오후 2시 구청 후생관에서 개최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만들기' 참석.

적십자봉사회 추석송편 만들기



장동태 서구청장= 16일 오후 1시 10분, 구청 지하다목적실에서 '적십자봉사회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 참석.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허대정 유성구청장= 16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추석맞이 공중화장실 정비 완료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추석에 맞아 지난 1일부터 관내 89개소 공중화장실 시설을 일제점검 하고 정비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대적인 대청소를 하는 등 귀성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공중화장실 내 · 외부 면지와 찌든 때 제거를 위해 불청소와 소독을 하고, 편의용품 교체, 파손시설 정비를 중점 추진했다. 15일 대청소 이후에도, 추석 전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에 힘써, 화장실 이용주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귀성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문화의식의 척도가 되는 공중화장실 청결도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내 집 화장실처럼 이용"해줄길 당부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2015 대전 반려동물 대축제 개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공감대 형성

2015 대전 반려동물 대축제가 오는 19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함께해요, 동물사랑'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행사는 애견인구 찬만 시대를 맞이하여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으로 애견인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전시가 주최하여 진행된다.

대전 반려동물 대축제는 단순히 보는 행사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특징으로 애견인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사육방법 등을 가르쳐 줄 '수의사와 함께하는 동물



건강 상담, 반려동물 영양상담,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과,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코너로 '반려동물 놀이기대회, 대전광역시장배 득(Dog) 스포츠대회'가 마련됐다.

또한,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동물정책 홍보가 진행되며, 어질리티, 프리스비 시범 공연을 준비해 다양한 볼

중앙로(대전역~목척교) 가로환경정비 나서

동구, 오는 10월부터 가로환경정비 본격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현현택)는 오는 10월부터 중앙로(대전역~목척교)에 대한 가로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과 연결되어 대전의 대표거리로 자리매김해왔던 중앙로가 노후 보도로 인해 통행불편은 물론 대전의 도시이미지에 훼손을 준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

극 반영, 시·구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전시에 '중앙로 가로환경정비'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시 특별교부금 3억원 확보라는 결실을 바탕으로 대전역~목척교 구간에 대한 보도 및 가로등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원도심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전

망이다. 한편, 구는 이달 19일 중앙로

다비치안경원 2층에서 주민들 및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현현택 동구청장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펼쳐온 노력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며 "본격화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개발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중앙로 및 동구의 변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전통시장 주변거리 주·정차 한시적 허용

추석명절 '코리아 그랜드 세일' 최대 10%까지 저렴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이 펼쳐진다.

대전중앙시장, 태평시장,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20곳이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시장별로 추석명절 세수용품 할인행사, 민속놀이 체험, 김장절 재료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된다.

연중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신도·태평·부사·문장·한민·도마·중리·오정 등 8개 시장 이외에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노은시장, 유성시장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최대 2시

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시는 관내 주요기관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고, 온누리상품권은 25일까지 한시적인 10% 할인판매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 1만원권, 1만원권 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한, 기업은행 등 시 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14일부터는 전세계 양봉인들의 축제인 '2015 대전 세계양봉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전의 대표적인 시장인 중앙시장, 은행동상점가,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 등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빈집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월 태평시장과 오류시장의 2개 시장 20개 점포가 중기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청년창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청년사업자는 시 경제정책과(T. 042-270-3521)나 대전 경제통상진흥원(T. 042-380-3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이종환 경제산업국장은 "대형마트 진출과 메트로 여파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서 물건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서구 어린이집 안전 장비 지원

1억3600여만원 투입, 승하차 보호기·장난감소독기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 어린이집 551개소를 대상으로 '승하차 보호기'와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15일 '배재대 부속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1억3천6백여만 원을 투입해, 통학차량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된 '승하차 보호기' 설치 여부에 따라 안전장비를 차별 지원한다.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중 승하차 차단기 미설치 어린이집 161개소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차단기'를 지원하며, 통학차량 미운행 어린이집과 통학차량 승하차 차단

기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 390개소에 대해서는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한다.

육치이는 스포츠용이라 불리는 '승하차 보호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시 '어린이 승하차 방지'란 표시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2월부터 승하차 보호기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보육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책 발굴에 힘써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정

차해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승하차 보호기'가 작동할 경우, 정차한 차모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까지 반드시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이 명시돼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배려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

김태선기자

중구, 제9기 뿌리아카데미 개강식

구정통합 지역리더 육성 시작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15일 중구문화복지관에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제9기 뿌리아카데미 개강식'을 4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15일 박용갑 구청장의 구정특강으로 문운연 뿌리아카데미는 오는

거리를 제공하고, 40여개 업체의 반려동물 산업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및 풍성한 경품 외에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일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행사장에서는 마련된 애견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배변봉투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전시 김광춘 농업유통과장은 이번 축제에 "애견인과 시민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FTA전문인재 육성 현장견학



대전상공회의소(회장 박희원)에서 운영 중인 대전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의 FTA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전지역FTA활용센터는 지난 5월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와 대전국제통상고 등 4개 특성화고교와 체결한 '특성화고 FTA 실무인재 양성교육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5일 오전 10시 대전역상, 대전 국제통상고 학생 50여명과 함께 평택세관과 횡단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지난 8월 대상여고와 세종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날 현장학습에서는 평택항만공사와 국제자동차부두, 국제보세창고, 컨테이너 검색센터 등을 방문해 수출인 물류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는 한편, FTA 및 수출입통관 실무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이해하고 관세사의 역할을 간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대전FTA활용지원센터장은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FTA 및 수출입통관 분야의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특성화고 우수인재를 추천해 연계할 방침"이라며 "이번 현장실습을 계기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FTA와 무역 실무전문가로 성장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FTA 전문가의 컨설팅과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전화(042)480-3044, 3045)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송병배 기자



임재만씨 책 출간, 풍경·온천·산·유적 등 4개 테마 소개

'생생한 유성의 모습' 담아

대전 유성구직원이 생생한 유성의 모습을 담은 책을 출간해서 화제다.

현재의 주인공은 유성구 기획공보실에서 유성구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재만(48)씨.

임재만 유성구 편집위원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유성 곳곳을 다니며 눈과 가슴에 담아둔 '생생한 유성의 모습'을 한편의 책으로 묶었다.

'유성 여자는 왜 예쁠까?'(임재만 저, 272쪽, 유성문화원). 책은 유성이 온천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도시이고, 그 근본은 탁월한 온천수 효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피부미용과 재할에 좋은 유성온천수와 대덕특구를 비롯한 숨겨진 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본문에서는 유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연관성을 풍경과 온천, 산, 유적 등 4개 테마로 나누어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봄에 가장 아름다운 갑천의 벚꽃, 왕들이 찾았던 건강온천, 유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갑하산, 우리나라 민족종교라고 할 수 있는 수운교 분부, 마지막으로 기묘한 곳에서 유성의 대표음식을 소개했다.

유성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유성문화원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고, 유성구 소재 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임 위원은 지난 2006년 유성의 오피니언 리더와 지역 이슈를 담은 '유성자치, 그리고 사람들'을 출간한 바 있다.

김태선기자

추석명절 과대포장제품 집중단속

시, 24일까지 포장횟수·포장공기비율 집중 점검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류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은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인형류 등), 종합제품에 대하여 포장횟수와 포장공기비율을 집중 단속한다.

이영호 기자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하여 기준이 위반될 경우, 자치구는 제조사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하고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필요한 포장을 줄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대덕구, 제2회 드림가족운동회 개최

가족기능 강화·이웃간 협동심 함양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이달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2회 드림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80가족 160명)이 참여하여 건전한 신체놀이를 통해 가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며 이웃간의 협동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식전행사로 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전통음식인 송편 만들기 ▲바깥 체험 5종(에어바운스, 골프, 단체줄넘기, 페이스페인팅, 타투체험) ▲Proto Zone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즐겁게 기념사진 찍기 등이 있다.

명랑운동회에서는 이웃과 함께 ▲풍선주머니체우기 ▲장애물마운스 ▲전체줄다리기 등 12종목을 청·홍팀 가족별 단체 협동게임을

하여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이번 사업은 우송대학교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자를 각 코너별, 경기별, 가족별로 배치하여 드림가족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키즈아카데미, 하나로내과의원, 행복한밥상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발굴은 물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이가 행복한 대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타 자체 분의사화는 대덕구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042-608-6982)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우리가족, 새 미래의 인성함양, 커

뮤니케이션 스킬링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 2011년 시작으로 총 87기 운영되면서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강생들은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인 참여의지 및 지역리더로 갖춰야 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좌를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강좌 수강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신청 접수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15일부터 12억 한도·업체당 3000만원 이내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15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aT음바이식품박람회 한국관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세계 제2대 인구 대국이자 10위의 경제대국인 인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도 뭄바이 봄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인도 뭄바이식품박람회(World Of Food India)'에 참가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인도는 물론 동남아, 미주 등 전 세계 식품바이어가 찾는 인도 최대의 바이어 전문(B2B)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써, 매년 10여개국,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65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하는 인도지역 농식품 홍보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됐다. 이번 박람회에 aT 한국관은 C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크라운제과, 국순당, 솔트앤 등 12개 수출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LG전자 인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LG-aT Jazz Bar'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내방객들은 LG전자의 우수한 백색가전제품을 체험하는 동시에 막걸리, 음료 등 우리 음료로 직접 만든 커피 및 전통 주전부리 시연·시식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되고 세련된 식문화와 전자기술을 체험했다.

또한 LG-aT Jazz Bar 옆에 aT 인포테크를 식문화홍보관으로 겸용 운영해 우리 주류문화 외에 우리나라의 뛰어난 먹거리를 인도인에게 소개했다.

박람회 기간인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누어 닭강정, 김치전, 비빔밥, 파전, 잡채, 닭발고기 등 여섯 메뉴를 내방객들에게 선보였다.

김재수 aT사장은 "인도 뭄바이는 우리 국적이 가장 추종하는 도시 중 유일하게 한식당이 없는 도시로서 아직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자리 잡지 못한 시장이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블루오션"이라며 "세계 두 번째 인구대국이자 제10위의 경제대국임을 제쳐두더라도, 성장년층이 전체인구의 2/3로 구성되는 등 앞으로 소비 증가 및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대인도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이런 지속적인 수출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켓테스트 및 한국식품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 총 12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소진할때 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공주시에서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

우나, 용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지원은 1개 업소 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00% 전액 보증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 1%의 보증료 우대가 적용된다.

공주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이은숙 담당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담보능력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3일 충청남도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아산시립도서관 은행나무길 점령



아산시립도서관 관장 권경자는 지난 13일, 은행나무길에서 '애들아, 도서관 이랑 놀자' 행사가 있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전국에서도 아름다운 거리

로 알려진 은행나무길에서의 어린이 관련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은행나무길에서는 책읽는 가족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사)색동어머니회 아산지회의 재능기부로 '친구를 찾습니다' 동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도서관 자료실 이용 인증사진을 찍어와 체험하는 [도자기 인형 만들기]와 [요괴워치 바람개비만들기]는 이벤트 체험티켓이 조기 소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모든 체험나라프로그램에는 대기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으며, 체험나라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웃음이 한가득이었다. 책나라에서는 (사)색동어머니회 아산지회와 (사)색동회 아산지회, (사)어린이책시미연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동화구연 후, 독후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책읽기의 즐거움을 더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선문대-러시아 3개 대학교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열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LINC사업단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워크숍을 러시아 태평양 국립대 공과대학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문대학교는 지난 8월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공동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선문대, 태평양국립대,

Altshuler에 의해 제창된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 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팀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아무르공소물공과대학의 TRIZ 전문가인 Elena V. Radkova 교수의 특강과 실습이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높였다는 평이다.

워크숍 기간 동안 선문대 학생들과 러시아 학생들은 열띤 토론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들을 도출했으며, 12일에는 러시아 하비탈스크 건축관련 협회장을 비롯한 외부 산업체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최우수 3개팀을 최종 선발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글로벌캡스톤 디자인을 취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선문대학교 LINC 사업단은 이번 러시아와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공동 워크숍을 계기로 러시아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의 산학협력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에는 대만 명진대학교와 글로벌다학제 캡스톤 디자인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9월분 재산세 209억원 부과

충남 서산시는 올해 9월 재산세로 토지분 189억원, 주택분 20억원 등 총 20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억원(6.2%) 늘어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30일 까지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ARS(1899-0019),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산=김정환기자



최초 5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수상

철도공단, 국민중심의 안전한 철도건설, 사회적 책임 노력 등 인정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5일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1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 :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수상했다.

KRCA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와 함께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등에 대해 국제기준(GRI)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전문가 그룹, 이해관계자(소비자, 협력사, NGO) 등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대회에는 104개 기업이 참여해 철도공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포항직결선(신경주~포항),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

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KTX 수해지역 확대 등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노후 시설물 개량 및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통한 철도 안전성 강화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역사시설 개량 및 선로변방음벽 설치 등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4년 청렴 위기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반부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적·제도적 부패유발 요인 제거, 청렴윤리 의식 내재화 등 4개 분야 33개 실행과제의 철도신뢰 회복 종합 선대책을 마련해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불공정관행 개선,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를 구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았다.

송병배기자

아산시북한이탈주민 가을 소풍 '만끽'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태)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보령의 웨스토피아 리조트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관한 지원센터 「행복한 동행」 회원 1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음 건강 토크와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오락 및 장기자랑을 즐겼으며 레일바이크를 타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했다. 또한 원예치료사의 진행으로 진행된 '나만의 정원 만들기'에서는

우울증 등을 극복하기 위해 화분 가꾸기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마지막 소감발표 시간에 70살이 넘는 신 어르신 참여자께서는 "대한민국에서 받는 대접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 정말 즐겁고 고맙다" 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내년도부터 행사 참가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금강교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교통통제 실시

백제문화제 야경연출 위한 작업 착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제61회 백제문화제를 10여일 앞두고 예년보다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밤의 백제를 연출하고자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산성과 어우러지는 화사한 야경을 연출하고자 금강교에 일루미네이션 설치공사를 시작, 오는 18일부터 오전 10시부터 금강교에 대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제61회 백제문화제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강신관광원과 공산성을 연결하는 금강교를 연출계획에 따라 새로운 컨텐츠의 LED 연출, 백제의 이야기를 담은 빛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각의 철 구간에는 물결모양 LED위로 말 모양을 설치, 백제 기마민족의 웅장한 기백을 표현하는 한편 비철구간에는 왕의 배가와 발받치 부분 모양을 검은색으로 두껍게 칠 하고 6각형의 거북등무늬와 금꽃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형상화 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는 오는 18일 10시부터 10월 6일 자정까지이며 차량을 제외한 도보 등의 통행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와 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입간판 설치, 마을 안내방송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KAIST 우원택 교수 연구팀, 연구 성과 발표

‘스마트 클라우드 쇼기술시연’



KAIST(총장 강성모) 문화 기술 대학원 (CT) 증강현실 연구센터의 우원택 교수 연구팀이 16, 17 양일간 진행되는 스마트 클라우드 쇼에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우원택(사진) 교수 연구팀은 아바타와 손을 기반으로 원격협업 작업을 지원하는 ‘안경형 증강현실 플랫폼’ 기술을 시연한다. 또한 손 동작 추적 및 인식 관련 기술논문은 유비쿼터스 지능로봇 국제학술회의(URA) 2015에서 발표하고, 원격협업 기술 논문을 원격존재 및 가상현실 관련 국제학술회의 ICAT-EGVE 2015에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원격협업 시스템은 2차

원 스크린을 활용하고 복잡한 가상 현실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환경에 도입하기 어려웠다.

개발된 기술은 증강현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착용자의 손을 인식하고 추적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원격에 있는 상대의 아바타와 현실 공간에 있는 착용자의 손이 증강된 콘텐츠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증강현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활용해 일반사용자들도 원격의 사용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작업하는 것과 같은 공존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자가감각 상황을 실시간에 추적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손 기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손동작 인식 추적기술이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봉사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은 혈액 공급 부족으로 생시를 오가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광장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봉사를 실시한다.

헌혈은 보통 사랑 나눔의 실천이라고 알고 있지만 헌혈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헌혈을 통해 ABO식 및 RH식 혈액형, B형 및 C형간염, 간 기능, 매독의 기본검사와 중단백, 알부민, 요소질소, 콜레

스테롤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헌혈자에게 개별 통보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작은 건강검진이다.

양태진 위원장은 "혈액 공급이 어려워 병상에서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아산시민의 정성이 모여 새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헌혈봉사에 아산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추석맞이『사랑의 쌀』1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충남본부(본부장 이강신)가 15일 한가위를 맞이해 충남도청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참석한 가운데)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외고·과학고 등 졸업생 절반이상 ‘타 전공 전학’

유기홍 의원,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용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지적

최근 5년간 외고·과학고·영재고의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전공이 아닌 타 전공으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외고·과학고·영재고 진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1~2015학년도) 전국 외고, 과학고, 영재고 졸업생은 47,414명이었고, 대학 진학자 37,258명 중 20,245명(54.3%)은 출신 학교의 계열과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외국어고, 5년간 동일 어문계열 진학자 31.3%에 불과해 졸업생의 7.6%는 이공계열 진학, 4.5%는 해외유학 떠나 2011에서 2015년까지 전국 외국

어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38,741명이었고, 진학자는 28,677명이었다. 인문사회계열 중 어문계열의 진학률은 31.3%(8,977명)에 불과했고, 인문사회계열 중 비어문계열의 진학률은 50.2%(14,385명), 이공계열 7.6%(2,168명), 의약계열 1.7%(491명), 기타계열 4.8%(1,365명)순이었다. 졸업 후 국내로 진학하지 않는 해외 유학의 비율은 4.5%(1,291명)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외국어고의 진학자 중 어문계열 진학률을 분석해본 결과, 31개 외국어고 중 ‘청주외고(80.9%)’와 ‘명덕외고(53.1%)’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어문계열 진학률이 5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문계열 진학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충남외고(2011년 1회 졸업생) 7%’, ‘고양외고’ 13.2%.

‘경남외고’ 13.5% 순으로 나타나 외고 간 어문계열 진학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간 어문계열 진학률이 가장 낮았던 ‘충남외고’는 2012~14년도 어문계열 진학자가 한명도 없었지만 2015년도에는 26명으로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24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5년간 어문계열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청주외고’는 2014년도에 비해 2015년 전체 진학자수는 26명이 증가했으나, 어문계열 진학자는 65명이나 줄어 전년 대비 6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과학고와 영재고의 경우 전공과 연관된 진학률이 높았다. 5년간 과학고 졸업자는 전체 6,844명이었고, 그 중 이공계 진학자는 6,432명으로 94.4%의 진학률을 보였다. 반

면에 영재고의 이공계 진학률은 과학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5년간 영재고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768명이었고, 이공계 진학률은 90.7%(1,604명), 의약계 진학률은 8.7%(154명)였다. 특히 영재고 중 서울과학고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205%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학고를 제외한 영재고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2.9%로 과학고의 의약계열 진학률(2.5%)과 비슷했다.

유기홍 의원은 “외고, 과학고, 영재고 졸업생 두 명 중 한명이 동일 계열로 진학하지 않는 등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용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이석화 청양군수, 노인 건강아카데미 특강

청양군은 15일 오후 1시 30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강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는 이석화 청양군수가 강사로 나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역할과 행복한 노년 보내기에 대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인 장수수당, 이·미용서비스 사업 안내 등 노년기에도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군수는 “건강아카데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강의, 자기계발로 노년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건강아카데미는 지난 4월 개강해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26회에 걸쳐 건강웃음치료, 영양관리, 심리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과 행복마사지, 치매예방 및 관리, 한지공예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청양=정성범기자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정보연락관 회의 가져



관세청이 운영 중인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센터(이하 WCO RILLO AP)’는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공동으로 ‘제27차 정보연락관(NCP) 회의’를 15일(화)~17일(목)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인 족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이번 연례 회의에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 회원국 정보연락관, 유럽 등 정보센터 대표 및 국제연합 환경연맹(UNEP)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마약류·산업폐기물·멸종위기동물 밀거래 등 국경범죄

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간 합동단속작전의 체계적 추진’, ‘세관 단속강조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별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제안한 ‘신종마약 국제계

단속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최종 승인·채택될 예정이다. 이 행동계획은 신종마약수행의 심각성 인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세관당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종마약 단속공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무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불법·부정무역 행위도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함께 앞으로 세관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지도력을 강화하여 마약수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백석학원 설립자 장중현 목사

개신교 내 제3의 대형교단 총회장 추대



백석학원 설립자 장중현 목사가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백석 통합총회(대신)’에서 두 교단의 통합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린 통합

총회는 1912년 하나로 출범한 개신교 내 장로교단이 현재 200여 개로 분열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대신 총회 백석 총회 교단부터 하나가 되자는 바람 아래 준비됐다.

통합 총회장 추대 후 인사말을 전한 장중현 목사는 “오늘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날”이라며 “대신과 백석의 아름다운 연합이 모범이 되어 한국 장로교단이 모두 하나 되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의 정을 느껴보세요”

농산물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임시개설 및 특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농산물 임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중소식품기업 등 141개소가 참여해 임시 직거래장터는 63개소, 특판행사는 78개소 총 141회가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장터와 특판행사의 시기·장소 및 판매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문 사이트인 상상장터(www.esingsing.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거래장터 임시개설 지원 사업은 이달 21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사업자에게는 부스

장치, 물품 등 장터 개설비용 1천만원이 지원된다. 관심 있는 지자체 및 단체는 a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안내문과 신청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aT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가 수확철을 맞은 농가에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농어촌공사 아산시자, 변화·혁신 3C운동 BP 경진대회

꼭 필요한 일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일종의 조직문화 운동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시지사(지사장 박성규)는 15일, 지사회의실에서 변화와 혁신의 3C운동 BP(Best Practice,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C 운동의 3탄 버리재(Cut), 바꾸자(Change), 만들자(Create)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효율적인 일은 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꼭 필요한 일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만들어 나

가는 일종의 조직문화 운동이다. 아산시지는 정부의 공사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조직 활력의 쇄신, 학습과 낡은 관행 답습 등 비정상적·비윤리적 경영사례를 수집하고 정상화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개선 해왔다.

아산시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버리재(Cut) 14건, 바꾸자(Change) 25건, 만들자(Create) 16건 총 55개 과제를 발굴 44건을 자체 실행하였고, 11건은 본사에 건의해 전자 차원의 혁신을 꾀했다.

3C운동 지사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1년 동안 추진한 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큐리오시티 오브 레노마’ 오픈

‘남자들을 위한 공간’ 선보여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지난 11일, 5층 남성패션 매장에 남성 전문 복합편찬샵인 ‘큐리오시티 오브 레노마’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큐리오시티 오브 레노마(CURIOSITY OF RENOMA)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풍부한 남성들을 위한 편집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패션 브랜드 레노마의 정장 등 의류와 함께 피규어, 사운드기기, 드론, 액세서리, 스탠드 등 남성고객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아이 같은 감성을 지닌 키덜트족과 패션과 미용에 과감히 투자하는 그루밍족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남성패션조영기 플로어장은 “큐리오시티 오브 레노마의 오픈을 계기로 남성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재미요소도 많은 매장을 유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금성백조 '에미지 어반코어' 탄생

대덕테크노밸리서 분양할 오피스텔 신규 브랜드 런칭

금성백조주택이 내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분양할 오피스텔 신규 브랜드로 '에미지 어반코어'를 런칭했다.

금성백조는 공동주택 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의 상품이 예정됨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금성백조 브랜드 개발 공모전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 총 3개 분야에서 네이밍과 디자인 B를 각각 응모 받았다. 또 3개 분야에서 총 1,500여건이 접수되었고 금성백조 주택은 오피스텔 당선작으로 '에미지 어반코어'를 채택했다. '어반코어'를 제안한 김태윤씨



에게 상금 3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가상 100편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정하고자 추가 심사 중이다.

쿠어졌다. 정대식 부사장은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주거상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입지이다. 어반코어는 오피스텔이 가지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의 쾌적성과 편의성은 물론 디자인에서도 프리미엄 아파트인 에미지와 어울린다고 판단하였다."며 "기존의 많은 오피스텔이 있지만 어반코어는 신개념 주거상품으로 아파트같은 오피스텔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대덕테크노밸리 에미지 어반코어(612실)는 내달중순,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1899-0023)로 하면 된다. 김태선기자



서구, 전국 최초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거리' 조성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전국 최초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거리'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시범을 추진했다.



당진소방서, 불시 긴급구조 훈련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근)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분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본진폭발로 인한 다수 사상자 훈련을 실시했다.



선병원, 대전·충청지역 경찰트라우마센터 개소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환) 유성선병원(병원장 박문기)이 15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대전경찰청(청장 김귀찬)과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상담·치유를 위한 '경찰트라우마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제이회 백제 문화제』대비 종합치안대책회의 개최 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는 지난 9월 1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부터 금강산관광객 및 공산성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이회 백제 문화제기간 중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교통 및 치안활동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천안동남서, 교차로 시설개선으로 교통안전 확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1번국도 신흥삼거리~도리터삼거리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방무청, 세종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 지난 15일 세종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8월 화재 건수 증가... 인명·재산피해 대폭 감소

폭염 속 차량 및 냉방기기 화재 등 증가주요 원인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태)는 8월중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인명 및 재산피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중 화재발생은 149건으로 전년대비 15%(11.2%)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3명(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전년대비 1명(25%)이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8억 4000여 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5억 3000여 만 원(38.6%)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 발생한 화재의 특

징은 자동차 관련 화재가 30건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전년대비 12건(66.7%)이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았던 것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8월중 주요화재로는 25일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주택에서 음식물취급부주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2명(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했으며, 11일에는 천안시 동남구 부대동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해 2억 4219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8월 중 화재건수에 비해 인명·재산피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소

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출동체계 개선 노력과 의용소방대에 의한 화재현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실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홍보 강화를 통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보급 및 사용법 교육으로 일반인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화재발생 주요 원인이 화기취급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으로 밝혀져 도 소방본부는 내부적으로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보강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포=이지용기자

논산소방서, 간이구급함 일제 정비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때마다 증가하는 가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간이구급함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구급함 정비·점검을 통해 등산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악 사고시 초기 대응을 위한 기초응급약품을 보충하고 심정지환자 대처 방법 안내 등 위급 상황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류봉희 논산소방서장은 "등산객들이 간이구급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19 신고전화로 통해 사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가을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10월말까지 주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산=한대수기자

서산, 지난 7월 10일부터 100일간 전담 검거반

주요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 운영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0일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 기간(7.10~10.17)을 지정해 수배자 전담 검거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배자는 반드시 검거 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진행되는 서산경찰서의 시책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산경찰서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기간동안 21명의 중요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경찰서는 이러한 불편을 타

파하고자 추적수사 역량이 뛰어난 수사관을 특별검거전담팀으로 전면 구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중요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산경찰서장은 "이번 특별검거기간을 통해 국민을 분노케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 중인 수배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로 새롭게 지명 수배되는 사람을 최소화하여 법질서가 바로 서산·태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소방서, 총무유치원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보급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 향상 위해 교육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5일, 총무유치원(아산시 권곡로 소재)에서 총무유치원 관계자 및 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4

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급상황 발생시 유치원 관계자 및 원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

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과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자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 CPR(심폐소생술) 요령 ▲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응급처치 요령(하임리히법) 등이며, 응급상황을 가정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총무유치원 교사는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은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사항이다.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반복 훈련을 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소방서, 추석 전 대비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 관계자의 안전마인드 함양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14일 청양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추석철을 맞아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밀집 예상되는 청양재래시장과 터미널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기사용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상가내

단독경보형감지기 미설치 대상 설치보급 ▲피난·소방통로 확보여부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세종소방본부, 화재 취약 시설 특별 점검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권대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했다.

소방본부는 18일까지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대상 1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방문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5일 18시부터 30일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돌입,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명절을 책임질 방침이다. 김경환기자

학생과 국민의 송고한 보훈의식 함양 위해 열린 공모전

국립대전현충원 웹툰공모전 시상식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웅정)은 15일 오후 3시, 본관 2층 점검실에서 제4회 국립대전현충원 웹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학생과 국민의 송고한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열린 제4회 국립대전현충원 웹툰공모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응모자격 제한없이 웹툰을 접수해 그 가운데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6명 등 모두 9명의 입상자를 선정했

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승기(금상, 일반), 이지선(동상, 일반), 문선영(동상, 상명대 만화학과 3년 재학) 등 3명의 수상자가 시상식에 참가했다. 권웅정 원장은 "제4회 웹툰공모전은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시 한 번 수상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50세이상 46% “추석 가족모임 당일치기 좋아”

최근 차례문화에도 많은 변화 생겨... 차례상 올리는 음식도 다양해지고 있어

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과연 부모님 댁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까? 50세 이상을 위한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전성기'에서 추석을 주제로 5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 세대의 절반 가까운 46%가 자녀들의 부모 방문은 서로 편한 당일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에 '자식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인 44%가 '차례 후 한두 끼니 식사를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과 더불어 차례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게

좋다는 응답도 2%를 차지해, 총 46%의 응답자가 1박 미만, 즉 차례 당일 헤어지는 게 서로 편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건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7%는 '하룻밤은 자고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연휴 기간 내내 최대한 같이 있고 싶다'는 응답은 3%, 귀경길 등을 고려해 '연휴 마지막 날 하루 전날까지는 같이 있고 싶다'는 응답은 14%였다.

최근 차례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차례 음식

에 대한 부모 세대의 의견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추석 음식을 전통적인 차례 음식으로 차려야 한다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8%, 전통에 어긋나는 음식이 다소 있더라도 차례상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해, 64%는 전통에 가까운 차례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살아 있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대부분 차려야 된다'는 응답은 31%, '살아 있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편한 방식이면 된다'는 응답은 5%를 차지했다.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길거나 휴일을 앞뒤로 붙여 긴 휴일을 만들 수 있을 경우, 추석 차례는 여행을 가로막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추석 차례 장소에 대한 부모 세대의 의견을 물었을 때, 53%는 '추석 차례는 반드시 집에서 지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21%는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차례를 지내고 된다'고 응답했다. 74%의 응답자가 집에서건 여행지에서건 차례는 반드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는 '캠핑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굳이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다.

이정복기자



태안교육지원청, 급식관계자 의견 수렴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기)은 지난14일 오후 16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영양(교)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 '길벗'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길벗에 참석한 영양(교)사들은 급식관리의 어려운 점(만족도, 시설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인사등) 감사했던 일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력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진로체험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청양교육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워크숍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이와 같은 다양한 진로체험 기관과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움직일 때 교육효과가 배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양군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과 진로진학 담당 부장협의회와 진로체험 센터 업무담당자의 소통을 위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워크숍'을 지난 14일 개최하고 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에서는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업무담당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구축하였으며,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에 체험 활동을 매칭해주는 일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시교육청-EBS 공동 주관 입시설명회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평생학습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 주관으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학습전략을 위한 대전시교육청-EBS 공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런 설명회는 1부에서 여한종 교사(EBS 대표 강사, 하남고)가 '2017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2부에서는 조안란 교사(EBS 전속 교사, 산본고)가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전략과 EBS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녹화하여 EBS(www.ebsi.c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국어와 영어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수학영역은 (나/가형)으로 문·이과로 구분하여 출제된다. 아울러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필수 과목으로,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된다.

한국사 문항 수는 2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따라서 한국사 영역이 포함되어 4교시 시험시간은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영역(과목)과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김정환기자

‘가을 한정’ 국화술 빚기 체험 진행

배상면주가, 우곡루에서 느린마을막걸리와 도시락 제공



전통술 문화기회 배상면주가대표 배영호, www.soolsool.co.kr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산사원'에서 가을 한정 '가을주 국화술 빚기 체험'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국화술 빚기 체험 이벤트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산사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을주 빚기 교실' 과정에 세시주 중 하나인 국화술을 빚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다. 쌀과 누룩, 효모와 식용 국화과인 '감국'만으로 직접 술을 빚는 과정으로, 노란 국화의 깊고 그윽한 향과 함께 우리 술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완성된 술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 가을의 한 자락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벤트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도시락도 제공한다. 참가자는 느린마을막걸리와 함께 제공되는 도시락을 가을도 물든 산사정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우곡루'에서 맛보며,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송병배기자



오천초등학교,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오천초등학교(교장 박삼규)는 지난 14일 도서실에서 1~6학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어 성폭력상담소의 배명옥 소장님이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성장발달수준에 맞게 교육을 진행했다.

여러 가지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교육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주었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설명 뒤에는 학생들

과 소통하기 위하여 퀴즈를 내었고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박삼규 교장은 "가정 폭력은 단순히 가정에서의 폭력이 아니고 더 나아가 성폭력 및 학교 폭력 등 여러 가지 폭력과 연결이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방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번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고, 재미있는 뮤지컬로 성교육 실시

아산고등학교(교장 강경산)는 지난 14일, 강당에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2015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날 뮤지컬은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성교육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아산=리량주기자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체험전 다녀와

금산여고 1,2학년 학생들,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금산여자고등학교(교장 정지화)의 1,2학년 학생들이 지난 10일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회 충남진로체험전'에 다녀왔다.

이번 '제4회 충남진로체험전'은 직업 세계관, 진로학습고성관, 상담관, 직업체험관, 학교체험관, 강연관, 동아리관, 이벤트존의 다양한 주제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진로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력을 강화하고 진로 및 학과 등의 탐색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꿈과 열정이 가득한 미래 진로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진로체험전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호학과, 한의학과, BI융합체육과학

과, 제과제빵학과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다양한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플로리스트, 미술치료사(상담전문가), 바리스타, 반려동물관리사 등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해보았다.

또한 반도네오니스트 '진선'의 특별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갖고 그와 관련된 대학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를 가졌다.

앞으로도 금산여고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올바른 충남교육 문화 조성에 힘쓸 것임을 전했다.

금산=김남규기자

세종시교육청, 내달 1일까지 의견접수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행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 2·3생활권의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설정(안)을 최근 홈페이지(<http://www.sjgo.kr>)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내에 걸쳐 이들 생활권에 1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섬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의 제정과 기존 학교들과의 학구조정이 필요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맞춰 2016년에는 3생활권에 3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2017년에는 2생활권에 5개, 3생활권에 4개의 학교를 각각 설립한다. 그리고 2018년에는 2생활권에 4개, 3생활

권에 2개의 학교를 추가로 더 신설할 계획이다.

예고문에 따르면 공청회시 제시했던 통학편의 및 학구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0개 블록이 11개 초등학교에 고루 배치되었으며, 중학군(구)은 3생활권의 4개 신설 중학교와 2생활권의 3개 추가 학교 설립에 따라 제·개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안전 및 적정 학구편제를 우선해 이번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를 설정했다. 지난 공청회 시 제기된 통학로 의견 및 과대학교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 추진

공주교육지원청, 청정 공주교육 실현하기 위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은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 확산·정적으로 청정 공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9월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직원은 '교직원, 학부모, 업체관계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액수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는 다짐

문을 회피하고 서명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청렴 문화 의식을 재정비했다.

조병택 교육장은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윤리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공주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명절이후에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2015 충남과학창의축전’

“과학이 문화로! 창의가 희망으로!” 10월 8일부터 9일 예산에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15 충남과학창의축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과학이 문화로 창의가 희망으로!'란 주제로 실시된다. 후원은 예산군, 충남과학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행사를 지원한다.

개막식은 10월 8일 오전 11시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메인무대에서 이루어지며,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

기제 관련 과학창의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행사 프로그램은 ▲과학자와 함께하는 사이언스콘서트 ▲융합과학 및 생활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60여개의 체험부스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력올림픽 ▲충남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송 부르기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과 교원의 함께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충남도와 예산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를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2015 충남과학창의축전이 충남 학생 및 도민이 만족하는 참신한 과학 창의문화의 장으로 10월의 가을 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이지용기자

● 동 정 ●●●

정책조정회의 주제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오전 9시에 집현실에서 정책조정회의의 주제.

선도산업경영단지 중간보고회



김석환 홍성군수= 16일 오후 3시 30분 장곡면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선도산업경영단지 중간보고회 참석.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황성봉 예산군수=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을 오일장에서 열리는 제 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오후 2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자살예방의 날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참석, 오후 4시 예산노인요양원에서 열리는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참석.

충남향토음식으로 '3농포럼' 입맛 돌린다

오찬 · 만찬용 도시락 · 한식뷔페 제공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참석하는 한·중·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농가맛집이 차려낸 충남의 향토음식을 맛본다.

충남농업기술원은 도내 향토식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5일 열리는 3농포럼에 도내 향토음식을 활용한 오찬 및 만찬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5일 14명 내외의 한·중·일 지방정부 및 시장·도지사를 대상으로 '농가맛집이 차려내는 충남의 맛'을 주제로 충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향토음식을 도시락으로 구성해 제공했다.

도시락 메뉴는 장아찌 골동반, 배김치, 너비아니, 잡채 2종, 나물 2종, 전 4종, 인삼튀김, 채소 샐러드와 밀쌈, 고구마묵, 버섯강정이며, 후식은 약과와 증편, 환과, 오미자차로 구성됐다.

이날 예산 덕산 리스승과캐슬에서 마련된 만찬에서는 2009년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충남명품밥상인 '추시밥상'을 재구성해 한식 메뉴 50여 종이 뷔페식으로 제공됐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오·만찬 제공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국적으로 충남 향토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향토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우리 식문화를 계승하고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충남도 '외투기업 발전' 현장 목소리 청취

아산서 간담회 · 코트라현장 상담 서비스 개최

충남도는 15일 아산 온양 제일 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및 코트라 현장 상담 서비스를 개최했다.

외투기업과 코트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외투기업에 유용한 지원 제도 ▲외투기업에 유리한 전국 사례를 소개하고, ▲외투기업 분야별 애로사항 상담 ▲도의 외투기업 사후관리시스템 설명 및 상담 등이 진행됐다.

특히 외투기업 애로사항 상담은 사전 접수된 상담 희망 내용을 코

트라에 파견 중인 각 부처 투자정책협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즉석 응답도 이어져 외투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허재권 도 투자임지과장은 "외투기업들이 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 되었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외투기업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또 "앞으로도 외투기

업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는 260여 외투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외투기업협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구성돼 현재 47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외투기업협의회 가입은 외투기업지원센터(041-539-4532)를 통해 가능하며, 도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 및 고충상담, 각종 교육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외부법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세종시청 '폼앤 카페' 개소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 시청 1층에서 '폼앤 카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개소식은 이춘희 시장과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종시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100대 과제 일환으로 청사 내 장애인 카페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창업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세종시는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사세중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선정했으며, 8월부터 카페를 운영해 왔다.

카페는 커피 전문 회사인 데일리 로스트커피와 사회공헌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매주 월~금,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한다.

세종시는 폼앤 카페와 같은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현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폼앤 카페 운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가 기대된다"며 "시정을 찾는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한 폼앤 카페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 건물 내 카페, 매점 등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폼앤카페'를 통합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김정현기자

2015 평생학습 어울마당

예산군은 15일 문예회관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6회 문해 한마당'과 '2015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문해 학습자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배워서 행복 L(러)중만! 함께해서 기쁨 L(러)두배!'를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 체험과 작품전시,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비롯해 문해 한마당 등 배움 안에서 하나 되는 특별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배움 마당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과정, 리본 공예, 전통떡 만들기 과정, 풍선아트 등 올해 실시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으며 나눔 마당에서는 캘리그라피와 문인화 및 수채화를 비롯한 문해 학습자가 만든 시와 그림이 전시됐다.

또한 문해교육 학습자 250여명과 함께한 '제6회 문해 한마당'에서는 한글 골든벨과 학예 발표 등 그동안 배운 한글 실력을 발휘하고 학습 성취욕과 동기를 북돋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황선봉 군수는 "2015 평생학습 어울마당에 많은 군민이 함께해 주 감사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훌륭한 하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군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인생100세 시대, 모든 군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농기센터, 과학영농 실천 앞장

딸기 화아 분화 검정실 운영 호응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에서는 관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화아 분화 검정실을 운영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딸기 재배면적이 190ha에 7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6천7백여 톤을 생산하여 충남에서는 논산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과 딸기가 생산되고 있다.

딸기 화아 분화 검정실은 오는 2월까지 운영하며 특히 딸기는 육묘부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꽃눈 분화가 안 된 딸기묘를 정식할 경우, 딸기 수확기간이 1~2개월 늦어지고 연속적으로 딸기 꽃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아 수확량과 딸기묘 관리가 어렵다.

이에 꽃눈 분화 확인 후 신속하게 정식하게 하여 꽃눈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꽃눈분화 확인방법은 딸기의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평평하게 생긴 생장점이 꽃눈으로 변화되면 비데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여름은 딸기육묘를 하는 동안 고온이 계속되어 꽃눈분화가 늦어질 우려가 커서 예년과 같은 시기에 심을 경우에는 1화방의 꽃이 적기에 나오지 않아 수량이 크게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꽃눈 분화전 딸기묘 정식을 하면 꽃눈의 출현이 늦어져 생산성이 떨어져 딸기 정식 전 꼭 농업기술센터 소득 작물분야에서 꽃눈분화 확인하여 정식해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전국 드론 고수들 실력 겨룬다

'내포, 꽃과 드론축제' 경진대회... 10월 2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드론레이싱 총 4종목의 경진대회가 치러진다.

특히 이번 축제가 열리는 내포신도시 홍보주변은 국화와 코스모스 등 화려색채의 꽃이 청명한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최상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드론경진대회 외에도 대규모 드론 체험장도 마련돼 일반 관람객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내포신도시의 탁 트인 가을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내포, 꽃과 드론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naeponewtown.or.kr/drone/>)를 통해 축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조경연 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내포, 꽃과 드론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론경기장과 최대 규모의 드론체험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축제에 드론 마니아는 물론, 일반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제1회 세종 농두렁 꽃마당 잔치 허수아비 제작

세종시연동면공동체운동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은기 지부회장, 채용운 이장단협의회장)는 제1회 세종 농두렁 꽃마당 잔치를 위한 동진들녘에 허수아비를 농두렁에 설치해 축제에 참가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5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허수아비를 제작했다.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2015 축산인 한마음대회 예산군 종합 2위 수상

예산군이 지난 11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린 '2015년도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종합 성적 2위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가축 선발대회' 7개 부문과 '고급육 경진대회' 2개부문 등 9개 부문에 참가했다.

충남 15개 시·군별로 105두가 출품돼 자용을 겨룬 '좋은 가축 선발대회'에서 군은 ▲유제남(신양면) 한우부분 경산우 1부 최우수 ▲박상춘(대술면) 한우부분 경산우 2부 우수 ▲민지홍(봉산면) 한우부분 경산우 3부 장려 ▲김현일(광시면) 젖소 암송아지 부문 우수 ▲윤희구(신양면) 젖소 육성암소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윤리 고급육 경진대회 한우부분에서 김원균(군기면)씨가 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한우와 젖소, 고급육 생산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우부분 최우수와 우수상을 수상한 유제남씨와 박상춘씨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한우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 종합성적 2위 수상을 통해 다시한번 우리 군 축산의 위상이 빛났다"며 "선박과 집중을 통해 우수 축산인을 육성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수돗물 제한급수 선택 아닌 필수

오는 10월 6일부터 6월말까지 20~25% 감량공급 들어가

홍성군은 오는 9.30 ~ 10.2까지 상수도제한급수에 대비한 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10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20~25% 감량공급(제한급수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K-water 보령권관리단(보령댐과 함께 8개 시군, 3개 발전사가 동시에 참가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훈련으로서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기적이며 강력한 제한급수를 통해 보령댐에서 공급받는 일일 32천m³의 80%인 256천m³의 수돗물을 홍성군 11개 읍면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이다.

적응훈련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훈련기간 동안 지역에 따라 제한급수를 위한 단수로 생활불편은 물론 탁수가 나와 업소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

훈련 배경에는 2년간의 극심한 가뭄 누적으로 보령댐의 저수율이 9.14일 현재 25%대로 떨어지고 저수량 또한 수자원공사 추정 27억만m³ 미만인 반면, 가을철 기상 전망 또한 당분간 큰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도 있다.

또한 업소 및 주민들에게 10%~30% 생활수 물이 끊어지는 등 동을 전개 했지만 물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현재 물사용 상태로 공급할 경우 내년 1월 13일까지 밖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8개시군이 목표 절수량을 정해 강력히 시행하면 내년 6월 말 우기전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권관리단은 댐 수위가 50미터(한계 취수점) 이하로 떨어지면 댐평을 해서 공급할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수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돗물 공급에 우려가 크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하수 관정개발, 마을상수도 관정용수 운반급수 등 자체 수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민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충남 '중소기업 판로 확대' 디딤돌 모색 나서

대·중소기업, 1대1 상담·우수상품 전시회 등 열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판로 다변화 지원을 위한 '2015년 제3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가 15일 예산 덕산리스포츠타에서 개최됐다.

충남도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59개사와 300여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와 상품 개발 아카데미, 우수상품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구매상담회는 삼성전자와 한국중부발전, 이랜드리테일 등 대기업·공공기관 59개

사 구매 담당자가 중소기업들과 1대1 구매 상담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특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도내 4대 주력산업을 비롯, 조선 및 유통 대기업이 대거 참여해 도내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중소기업 상품개발 아카데미에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 입점 절차와 직거래 정책, 선정 기준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상향과 유통시장 현황과 전망, 가격 결정 및 협상 전략,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역량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 상품 전시회에는 40여 중소기업이 참여

해 눈길을 끌었으며, 볼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도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 판매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북극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구매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상품을 선보이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케팅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추석 맞이 도로 일제정비

391개 노선 472km, 제초 작업·차선 도색 등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까지 관할 지방도 및 시·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391개 노선, 472km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추석을 맞아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세종시는 ▲도로변 제초작업과 토사 및 적치물 제거 ▲도로표지관 상태점검 ▲노면정수 및 도로 안전시설 보수 등 도로 전반을 집

중 점검·정비한다.

또한 교통정체 시 회피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과노선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낙석위험지구와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시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정 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 =16일 오전 11시 TJB 사옥앞에서 열리는 TJB 생방송투데이 녹화 및 인터뷰에 참석, 오후 3시 접견실에서 열리는 신평면거산리 용수로개발사업 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

정미면 이동의정실



이재광 당진시의장 =16일 오전 9시 40분 대호지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대호지면 이동의정실에 참석, 오전 11시 필경사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심훈상록문화제추모식에 참석, 오후 1시 40분 정미면사무소에 열리는 정미면 이동의정실에 참석.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



한성기 태안군수 = 16일 오전 9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회에 참석.

장학증서 수여식



이석화 청양군수 =16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신창면 오목2리추석맞이대청소실시

아산시 신창면 오목2리(이장 서광석)는 추석맞이 고향찾는 귀향객 및 주민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신창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3일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청소에는 마을주민 40여명이 참여해 마을주변 및 주요 도로변, 새터 저수지 일원에 산재된 2톤 가량의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으며 마을주변의 잡초 등을 제거해 밝고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광석 이장은 "마을 진입로 및 주변 도로변가의 제초작업으로 밝고 청결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환경가벼운 마음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입이 개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지속된 가뭄으로 제한급수 불가피

당진시, 보령댐 수위감소·일부지역 10월부터 제한급수 실시 예정

충남 서북부지역 유일한 광역상수원인 보령댐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당진시는 일부 동지역(채운, 행정, 용연, 구룡) 및 면지역(고대, 대호지, 정미)에 10월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14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26.3%, 3000만호로

보령댐이 보령·서산·당진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8개 시·군에 하루 20만호의 생활용수를 공급중인 점을 감안할 경우 공급기간이 5개월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용수공급량 1단계로 하천 유지용수를 줄

이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달 초부터는 '심각 II단계'에 돌입 생활용수 공급량을 20% 감축 제한 단수가 불가피해진다.

당진시는 그동안 제한급수에 대비 절수운동 전개와 자체 수원 확보, 광역 급수체계 조정, 급수차 확보, 병렬비축 관련 등을 충남도와 합동으로 모색했으며 15일에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당진시장 및 터미널 주변에서 물 절약 캠페인 실시했다.

특히 전광판 및 기관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에 참여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달콤한 건강식품' 호박고구마 수확 한창

이달 초부터 수확 시작·섬유질과 수분 많아 웰빙식품 각광



달콤한 맛이 일품인 태안군 호박고구마가 소비자 곁을 찾아가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안면도와 남면 등 태안군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태안 호박고구마가 이달 초부터 수확에 들어갔다.

호박고구마는 육질이 호박처럼 노란색을 띠는 고구마로, '꿀 고구마'로 불릴 만큼 당도가 높으며, 섬유질과 수분이 많아 소화도 잘 되는 우수한 품질의 고구마다.

특히, 태안 호박고구마는 황토와 서늘한 기후속에 자라 당도가 더욱 뛰어나며 대부분이 무농약으로 재배돼 맛이 뛰어나고 몸에도 좋아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안면읍 승안리 174번지 일대 약 2만 6천㎡에서 13년째 호박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이용복 씨는 "10kg에 3만 5천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농장을 직접 찾아와 구입해갈만큼 인기가 많다"며 "1000㎡당 2톤 가량 수확하며, 굴을 파 그속에 고구마를 저장하는 전통 방식을 사용해 연중 판매도가 높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호박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최고의 식품"이라며 "태안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호박고구마를 많은 분들이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서울메트로노동조합 업무협약(MOU)체결

활력 있는 농촌, 창업귀농 활성화의 성공적 실현



청양군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창업귀농의 성공적 실현으로 도농 상생 도모하고자 서울메트로노동조합과 손잡았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석화 청양군수와 김철관 서울메트로노동조합위원장, 강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창조농업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으로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창업귀농 활성화를 위

해 전락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상시교육, 워크숍, 현장실천 등을 공동 추진하며 귀농귀촌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교육시설, 체험행사, 강사 및 귀농프로그램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전문가 상호교환 활용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석화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귀농인 육성과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창업귀농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철관 위원장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영인산 어린이 반딧불이 모니터링단 운영 인기



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소장 최홍락)는 지난 10월 '어린이 반딧불이 모니터링단'을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반딧불이의 생태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실시한다.

총 6회 실시하는 '어린이 반딧불이 모니터링단'은 매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매회

마감되고 있어 반딧불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 10월 처음 실시한 '어린이 반딧불이 모니터링단'은 프로그램 진행시간상 야간에 실시하여, 보호자가 같이 참여하여 가족이 함께 생태에 대해 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쉽게 볼 수 없는 반딧불이의 불빛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즐거운 생태탐사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생태계의 소중함과 희귀한 반딧불이의 신비함을 함께할 시간을 갖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이 앞으로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대사증후군관리실 건강증진센터 본관 이전

청양군이 환자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클리닉과 대사증후군관리실을 건강증진센터에서 본관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본관 건강증진센터에 있던 금연클리닉과

대사증후군관리실을 본관으로 옮겨 내과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고위험자의 질병상담 및 영양상담, 합병증예방관리, 건강검진 이상자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케 됐다.

또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며 건강검정과 상담을 통해 진료와 보건사업을 연계해 체계적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계자는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진료실과 대사증후군관리실의 접근성을 확보해 건강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

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사증후군이란 심장과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이 한 사람에게 3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적절한 식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한 체중유지로 관리해야 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충남 다사랑카드 가맹점 모집

태안군, BC카드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주어져

태안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 다사랑카드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충남 다사랑카드는 충남도가 농협/BC카드 및 가맹업체와 협약을 맺고 2차녀 이상 가정에 발급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장려 시책이다.

다사랑카드로 가맹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차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시중 포함인 가정이다. 다사랑카드 가맹대상업종은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정비업, 문화/예술체육, 이·미용업, 요식업, 학원, 안경점, 사진 등 다양하며, 가맹점에는 △BC카드 수수료 0.2% 할인 △BC카드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충남도정 및 태안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연중 실시되는 다사랑카드 가맹점 모집에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출산율 증가와 임산부의 행복환육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사랑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 다사랑카드 홈페이지(http://mcsa.rangboccard.com) 또는 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670-2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열려

당진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센터확대운영 방안 논의

당진시가 15일 소회의실에서 '2015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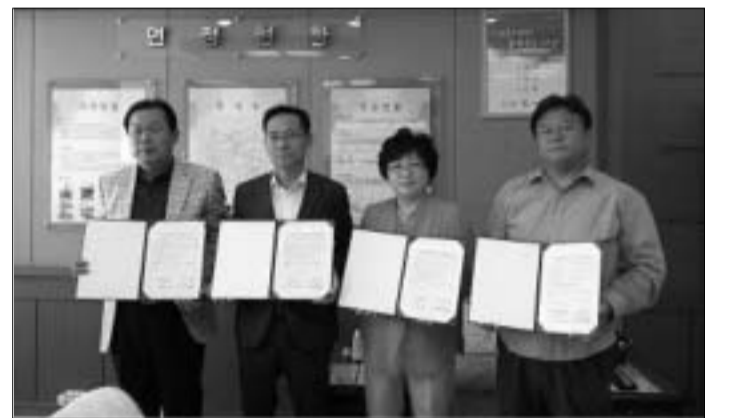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정병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전문가, 의료전문가, 교육전문가, 복지 전문가, 지역단체대표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5명과 관련 공무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임산부 포함)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2016년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드림스타트 주차장 확보 및 센터확대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진시 드림스타트센터는 지난 2010년 개소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또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다양한 후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gogo한 도고 만들기 협약 체결

아산시보건소, 1530걷기실천사업 주력 행정적 지원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지난 10월 도고면사무소에서 도고면 이장단 협의회·도고면사무소·도고주민자치회와 '오랫차! 건강플러스 하모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플러스 하모니사업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강사 지원, 건강홍보관등을 운영 지원하며, 도고면에선 지역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1530걷기실천사업을 주력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 요구조사를 실시해 걷기동아리 활성화, 몸짱마당 건강마을 선정, 코메디 홀 건강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이장단의 주민요구조사 과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요구를 수렴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지역에서는 걷기동아리 활동으로 'gogo한 도고'의 위상을 보여주게 된다.

한편, 몸짱!만땅! 건강마을에서는 차매관리·건강검진·구강이동차량지원·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메디 홀, 아산레일바이크, 유기발효음식 전시관, 세계꽃식물원 등의 들레길 걷기코스를 개발해 관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200년 전부터 알려진 도고온천의 명성을 'gogo한 도고' 건강걷기를 통해 새롭게 하고자 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서천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25건, 2억847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 철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괄 계산되어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950-4088)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백제왕에게 세계유산 등재 끄하다

부여군 백제왕릉원 고유제·벌초행사 진행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15일 백제왕릉원에서 고유제 및 벌초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여군내 기관장 및 군의회 의원, 읍면 이장단, 새마을지도자회, 고도보존 세계유산추진협의회, 백제사적연구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고, 세계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용우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백제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백제인의 후예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며,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해 통합보존관리 계획을 수립,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나성을 발굴조사·정비 사업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유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광 관리체계를 수립, 세계유산의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하는 제61회 백제문화제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계유산 마크 삽입 도로(관광표지판 및 문화제 안내판)를 설치하여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화제 기간 동안 4개 유적지 무료 입장을 실시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정복부여=기자

'1박2일 가족독서캠프' 진행

천안시중앙도서관 캠프파이어·작가와 만남 등 마련

천안시중앙도서관(관장 김영성)은 오는 9월 19~20일 광덕초등학교에서 '2015 광덕·풍세 작은도서관 1박2일 가족독서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가족독서캠프는 광덕·풍세면 30가족 100명이 모여 '저장방 탈출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북독활동은 물론 캠프파이어, 풍등날리기,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독서캠프에 참여하는 광덕·풍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캠프가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행사진행에 필요한 가족별 텐트 설치, 캠프파이어, 풍등날리기 등 캠프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독서캠프 테마 동화 '저장방'의 저자인 소중애 작가가 캠프장을 찾아 참가가족들과 함께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숨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다.

광덕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캠프는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광덕·풍세지역 초등학교 및 학부모, 광덕·풍세면 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협동으로 진행되어 온 마을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행사진행 관계자는 "이번 가족독서캠프를 통해 광덕·풍세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작은도서관을 독서문화공간이자 마을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타문의사항은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팀(041-521-3791)으로 연락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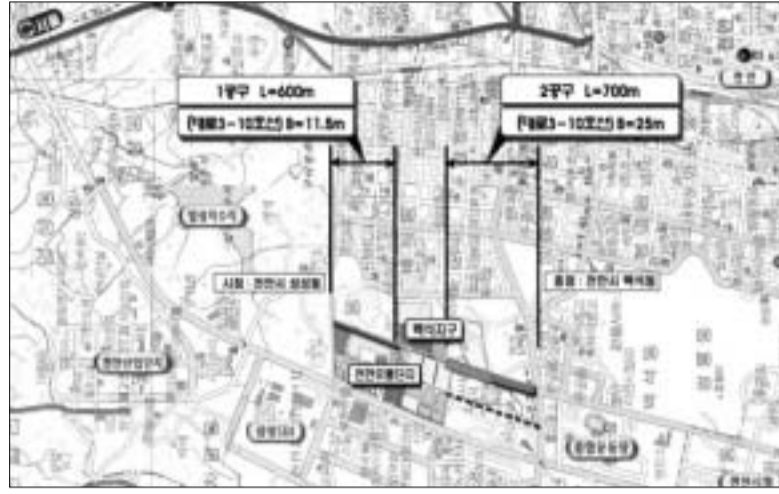
추석전 임시개통 원활한 소통 지원

천안시, 백석로~북부대로 연결도로공사·직산읍 자은거리 시도10호 교차로 개선사업

천안시는 추석을 앞두고 현재 시공 중인 주요도로사업의 공정을 앞당겨 임시개통을 통해 원활한 차량소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백석로~북부대로간(대토3-10호) 연결도로개설공사와 직산읍 자은거리 시도10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앞당겨 추석전 임시개통으로 귀성객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석로~북부대로간 연결도로 공사는 백석동 백석아이파크2차아파트 일원 34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10월말 준공예정이지만 추석때까지 보조기중을 깔아 왕복2차선으로 우선 임시개통하여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정체



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연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직산읍 자은거리 시도10호선

교차로 개선사업도 공정을 서둘러 추석연휴 상습정체구간인 국도1호선의 우회도로 기능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천안C차량을 위

해 추석전 임시개통으로 상습정체 구간을 우회하여 시내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광덕면 광덕삼터~주자장구간 시도11호 인도 설치와 병천면 가전리 시도6호 병목구간 재설치교량을 임시개통하여 성묘객 및 연휴에 광덕산을 찾을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천안시 인석진 건설도과과장은 "오는 25일까지 공사 중인 2곳의 임시개통으로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희망을 전하다

하반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양·활동교육의 장 마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5일 오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확산 및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으로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을 돕고자 이뤄졌다.

2시간에 걸친 전반적인 직무교육과 강위원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장의 '참여자 건강관리, 변화에 수용하는 자세'를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건강한 노후 생활과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강 후에는 가수 하나영의 문화공연도 마련돼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다.

문관복 진접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후 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여명의 참여자들을 100여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에 배치, 저충분노인돌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공동작업형 등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국 종합평가에서 2013년에는 최우수상을, 2014에는 대상상을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계룡시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음식점 영업주 300여명...친절한 서비스와 좋은 식단 실천 다짐



(사)한국외식업 계룡시지부(지부장 김재권)는 14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생교육은 친절할 서비스와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홍록 계룡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메뉴 개발과 손님 마음을 사로잡는 친절할 서비스 정신으로 관내는 물론, 軍屯화축 등 외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계룡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권 지부장은 "이번 교육은 식품접객업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통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기와 함께 다짐의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을 위하여 육·해·공 3군 총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계룡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룡=주선용기자

서천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준비에 박차

2017년도 '서천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대상지로 추진중인 서천군 3개 마을(한산면 고촌리, 기산면 영모리, 관교면 흥림2리) 주민들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각 마을별 주민교육을 시작으로 7월 선진지 견학에 이어 9월 추진위원회와 전문가, 군 관

계자,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위한 역량강화 주민합동워크숍을 진행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남지역 대표 우수사례지역인 영암 전맛들권역, 나주 왕곡권역, 강진 녹향월촌 권역을 둘러 선진권역의 성공사례 및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자리가 되었고, 견학 중 진행되었던 마을발전토론회에서는 각 마을의 숨겨진 자원을 찾는데 주민 모두가 의견을 내는데 적극 동참했다.

또한 지난 9월 9일 실시된 주민합동워크숍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약 8시간 가량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민 모두가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깊이가 더해졌다.

한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문화복지 및 경관생태분야의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총5억원의 사업비를(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서천=김태선기자

제7회 상월명품고구마축제 19일 개막

19~20일 이틀간 다채로운 행사·상월명품고구마 매력 '풍당'

매년 이맘 때쯤이면 논산시 상월면 일원은 답답하게 고구마 여물어가는 소리가 쟁쟁고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가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진다.

제7회 상월명품고구마축제가 '맛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상월명품고구마'를 주제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금강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달한 막을 올린다.

개막 축하공연 등 3개분야 44개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추석을 앞두고 상월명품고구마의 진가확하는 농가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진다.

19일 오전 10시 상월두레품물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 시작되며 이틀간 당도와 맛이 뛰어난 상월명품고구마 무료시식과 고구마캐기체험, 고구마화분만들기, 클레이로 고

구마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상월두레품물공연, 7080다이브 공연, 흥부전 등 문화공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개막축하공연에는 가수 김용임, 소명, 현진우 등이 출연해 축제의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2일차인 20일에는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주민자치 공연, 통기타공연, 각설이 공연을 비롯해 오후 2시부터는 연이은 초청 축제대회의 축제대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상월행사로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상월

면지역에홍보관 등을 마련,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구마와 지역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며 특히 고구마수확의 기쁨을 즐기며 가족간 정까지 돈독히 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뉘어 높아지는 고온 하늘과 빛깔에 편히 가슴이 설레이는 날, 땅과 호흡하며 땅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 갈 수 있는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상월명품고구마 축제장에서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만끽해도 좋겠다. 논산=한대수기자

등정
시책구상보고회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보고회

구분청 천안시장= 16일 오전 8시부터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6 시책구상보고회에 참석.

최홍록 계룡시장= 16일 오전 11시 상 황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보고회 참석.

토론회

노박래 서천군수= 16일 오전 10시 시 초 초 등학 교에서 열리는 제6회 시 초 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잔치에 참석 하고, 오후 4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열리는 장항제련소 토지매입구역 활용방안 토론회에 참석.

이용우 부여군수= 16일 오후 2시 외산면 민수2리에서 개최하는 녹색마을 선정현판식에 참석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계룡시, 대형마트와 노유자 시설 점검

계룡시(시장 최홍록)는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등 추석대목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건축, 기계, 전기, 가스 등 각 분야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여부 ▲자동 화재탐지 설비 수신기 및 시각경보장치 예비전원 작동여부 ▲미사용 LPG 용기 방치 등이다.

한편,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고 현장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취약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전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봉사활동

부여군시설관리공단 한울봉사단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난 14일 장애인생활시설인 부여 밀알의집을 방문하여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울봉사단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봉사로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나누고자 매월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이번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 15여명이 참석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환경정리 및 진입로 주변 잡초제거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모금활동으로 마련한 쌀과 라면 등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한편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능기부, 한울캠페인, 연탄 나눔, 연말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정

수요간담회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 16일 오후 4시 4대 왕 송도관 건립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상황실에서 갖고, 오후 5시 상황실에서 수요간담회 주제.

생방송투데이 인터뷰



김동일 보령시장= 16일 오전 11시 대전 TJB사옥에서 열리는 생방송 투데이 인터뷰, 오후 2시 30분 대전 3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3/4분기 읍면동장회의 참석.

제10회 평생학습발표회 개막식



이완술 서산시장은 16일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0회 평생학습발표회 개막식에 참석, 오후 5시 훈포장 국회의원 서산비행장 방문 현장 배석.

금산혁신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박중철 금산군수= 16일 오전 9시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금산혁신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참석.

학생상담지원봉사자 협의회



박도순 보령교육장= 16일 오전 10시 30분 제2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학생상담지원봉사자 하반기 회의 회 참석, 오후 4시 청다초등학교에서 2015학년도 학부모교육 초청 특강 참석.

2015년 하반기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스마트 인재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고일 기준 금산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반기 장학생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장학생은 우수·재능 및 희망 3개 분야로, 총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71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및 재능 장학생의 경우 1인 각 250만원, 희망 장학생의 경우 1인 각 125만원(생활비)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은 본 장학재단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장학생 선발은 성적(직접학기) 및 당 장학금의 수혜여부 등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거쳐 10월 21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6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26명의 학생들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장학금 전달, 해외 어학연수 및 인터넷 화상영어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활발히 추진, 금산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금산교육사랑재단(041-751-3255~) 또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www.geumsan-edu.or.kr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김남규기자

서산시, 2016년도 신규 시책 토론회 열어

내년도 외부자원 유치 준비 박차

서산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신규시책 토론회'를 갖고 내년도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고 정부예산 편성이 30일 앞당겨짐에 따라 신규 시책 구상 순기 또한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미 보고된 사업, 소규모, 계속비 사업 등은 모두 제외하고, 국·단별 2회로 나누어 개최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각 담당관에서 94개 시책을, 2차 토론회에서는 건설도시국, 미래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90건의 시책을 보고했다.



총 184건의 시책 중 신규시책은 134건, 개선보완 시책은 47건, 논의 시책은 3건이다.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 서산시 모든 시민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 ▲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 서산시 통합브랜드 확산 ▲ 도

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 시민 참여 정책박람회 개최 ▲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 제정 현안토론회 개최 ▲ 서산시 U-통합안전센터 구축 ▲ 복합공영버스터미널 및 대산공영버스터미널 조성 ▲ 자동차 페카도시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바이오·헬빙·연구특구 특화산업단지 지정 ▲ 무선 원격 가족사랑관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성연-인지) ▲ 문화도시 조성사업 ▲ 내포-해미 역사유적 문화자원화사업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의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제여객선 취항을 대비하고 민선6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된 신규 시책은 내부 토론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및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읍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심이미지 개선

금산로·비호로 2개 구간 LED입체형 간판으로 교체

금산읍 도심의 건물들이 산뜻하게 변신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된 덕분이다. 현재 건물 85동 207곳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구간은 금산로(읍사무소4가 앞 후관천-상하옥4거리 780m)와 비호로(아인4거리-읍사무소4거리 620m) 2개 구간이다. 이번 간판개선은 사업구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낡고 크고 화려한 간판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LED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3월에 이전 시공구간과는 달리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협소별 간판에 대한 2차 컨설팅과 충남 공공디자인 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최종 설계안은 4월경 점포주의 의견을 받아 간판 디자인 설계에 들어갔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 구간의 간판규격은 지난 해 고시된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표시 제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한기준에 정비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으며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는 등 기존 법령과 충남도 조례보다 규격이 한층 제한돼 있다. 간판개선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9000만원으로 군에서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입주주의 부담을 10%로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상가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낡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큰 간판을 정비하고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금산=김남규기자

서산 동부시장 추석 앞두고 행사 풍성

경품대잔치 응모·사물놀이·난타 공연 등 즐거움 선사

민속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풍질 좋은 성수품도 구입하고 경품까지 덩어리 가져갈 수 있는 다채로운 장터 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후 추첨권을 받아 푸짐한 경품과 상품권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회장 최연용)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만원이상 장을 본 고객에게는 경품대잔치 응모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은 대형 냉장고와 TV, 은누리 상품권(600만원 상당) 등이며, 10월 1일 오후 3시 찜지공원에서 추첨행사를 열 예정이다.

특히 행사 첫날인 18일 오후 3시부터는 사물놀이와 난타 공연 등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려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문화행사는 뜬쇠예술단과 문화동아리 학생들의 공연을 비롯해 시민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지며, 전통시장 은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시상도 있게 된다.

앞서 찜지공원에서 지난 4일 오후 6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캠프가 열렸다. 라디오방송국 개국1주년을 겸한 캠프는 사물놀이와 청취자가 직접 골라 듣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판매수익금은 전액 기부 예정이다. 최 회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불편함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추석맞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

보령시는 15일 웅천 전통시장과 시가지 일원에서 추석맞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를 가졌다.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와 부녀회, 웅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웅천역과 전통시장, 시가지 등 단정분 단정분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령시는 15일 웅천 전통시장과 시가지 일원에서 추석맞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행사를 가졌다.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와 부녀회, 웅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웅천역과 전통시장, 시가지 등 단정분 단정분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동네

공주시 회계 업무 길라잡이 발간

관련 규정·실무자료 수록... 업무능력 향상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과 회계실무 자료를 발췌한 '2015년 회계제도 공무원 회계업무 길라잡이'를 제작 배부하였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 배부한 회계업무 길라잡이는 총 570쪽 분량의 회계업무 지침서로 기본적인 회계 개념부터 지출의 특례, 공무원 예비업무처리기준까지 회계업무의 핵심 사항이 수록됐다.

특히, 보조금과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수익계약 및 선급 지급 요청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기재,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이번 책자를 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배부, 회계 담당자는 물론 전 직원 연찬을 통해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용순 재무팀장은 "앞으로 신규직원은 물론 회계담당 직원들이 회계업무 처리 시 이 지침서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예산집행과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시, 2015 구조·응급처치 교육

시민들 대처능력 향상 시킨다

보령시가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8일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가진다.

시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 환자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고,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구급차 등의 운전자,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 안전업무종사자 등 법정 의무 교육대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가졌다.

교육 당일인 18일에는 1차시는 오후 1시 30분, 2차시는 오후 3시, 3차시는 오후 4시 30분부터 각각 80분씩, 50여명이 참가해 진행되며,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의 이론교육과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실습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생존율은 40%로 우리나라의 5~10% 비율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며, "시민 모두 심폐소생술을 익혀 내 가족과 이웃이 위급 상황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이후에도 시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기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보령=김태선기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주시, 올해 8억 60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을 기준으로 바닥면적 160㎡ 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2만여건에 8억 6,000여 만원이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to.go.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자원과(041-840-851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주시 환경자원과 환경정책담당 심미정 담당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브의 사랑 (MBC오전7시50분)



오이사는 강민(이동하)에게 송아(윤세아)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구회장(이정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별이 되어 빛나리 (KBS2오전 9시)

애숙은 미순에게 조재균 사장 사건을 들추고 다니면서 쏘아붙이고, 정례는 자꾸만 미순과 자신의 가족들이 엮이는 것이 신경 쓰인다.

케이블 명화

▲월드 워 Z (OCN오후3시00분)

전 세계 이상 기류... 거대한 습격이 시작된다! 의문의 항공기 습격, 국가별 입국 전면 통제, 국경선을 둘러싼 높은 벽...

그리고 정체불명 존재들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인류의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인자, 제리 군인 출신으로 전지 경험이 풍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UN소속 조사관 제리는...

마침내 제리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정체들과 직면하게 되고,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필사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 데... 과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인류 최후의 대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동필은 조재균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긴장하고 마침내 김형사가 그들을 찾아와 함께 경찰서로 가져가고하는데...

▲어머님은 내 며느리 (SBS 오전8시30분)



양회장은 동우를 집으로 초대하고, 경숙을 본 동우는 할머니라 부르며 반가워한다. 위기에 처한 경숙은 동우를 따로 불러 입막음을 시키지만, 동우에게 임신이라며 거짓말을 한 경숙은 늘어나는 거짓말에 괴로워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 (채널CGV 오후4시40분)

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 30대 한국인 주부 마약 운반범으로 검거! 대한민국이 외면한 안타까운 사건이 공개된다!

“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아내. 여권에 처음도장이 찍히던 날, 그녀는 프랑스에서 미약범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곳.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발. 제 아내를 돌려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세상 전부인 평범한 남편.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집과 어렵사리 마련한 가게 그리고 아내마저 잃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원석을 운반한 아내.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대서양 건너 12400km 지구 반대편 프랑스 외딴 섬 마르티니크 교도소.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마녀면 곳. 그는 아내를 되찾을 수 있을까?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서산중, 2015학년 교육감배 축구대회 우승



서산중학교교장 백영철(왼)은 지난 12일(토)~13일(일) 이틀 동안 예산에서 열린 2015학년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팀 충남지역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둔원중학교 '2015년 전국중고교 추계연맹전 정구대회'

정구 여자중학부 단체전 경기 우승



대전둔원중학교교장 손석표(왼)는 지난 7일~13일 전북 순창 실내정구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년 전국중고교 추계연맹전 정구대회'에서 정구 여자중학부 단체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원중학교 정구부(감독 윤재우, 코치 홍민원은)는 단체전에 이주진(3학년), 강단비(3학년), 임진아(1학년), 김혜진(1학년), 김현지(1학년), 안정원(1학년), 이유빈(1학년) 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아산백의중군보존회, 백의중군길 표지석 앞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고유제 거행

아산백의중군보존회(회장 박승운)는 지난 14일 아산시 둔포면 운룡리(능안사거리) 백의중군길 표지석 앞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유제(告由祭와 제막식을 거행했다.

고유제는 김중욱 백의중군보존회 부회장의 집례로 강신, 참신, 초현(초현관 백의중군보존회장 박승운), 아현(아현관 둔포면백의중군보존회 부회장 유근중), 중현(중현관 이산=리장주기자

대전시존 U-15유세호 청소년대표팀 승선

대전시존 U-15(유세호) 소속 유세호가 '2016 AFC U-16 선수권대회 지역예선'에 참가하는 청소년 대표팀에 최종선발됐다.



청양합천초, 일냈다! 배드민턴 우승 지난 9.11.~12.2일간예선에 이어 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였다.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 OCN 3:20 신들의 전쟁 5:10 아티스트 봉만대 6:50 어브디션 8:40 그림형제 시즌4 10:4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2:40 트론: 새로운 시작 15:00 월드 워 Z 17:10 전우치 19:50 2012 22:40 처용2

- 채널 CGV 2:20 울드 보이 4:30 사대명포 2 6:40 오색한연애 8:50 무비스투커 10:10 노벨버맨 12:10 강철중 공공의 적 1-1 14:40 레이디링 후드 16:40 집으로 가는 길 18:10 그레이트 21:00 무비스투커 22:20 무비스투커:금주의 영화

- Mnet 7:30 정용화비 홀로그램 8:30 M morning 9:00 음담배설 10:00 아반TV 11:00 Mnet Music Twit(SNS) 11:50 헤드라이너 13:00 언프리티 랩스타P 14:20 슈퍼스타K7 HOTCLIP 14:40 4가지쇼 15:40 음담배설 16:40 Daily Music Talk (SMS) 17:30 언프리티 랩스타P 18:50 헤드라이너 20:00 4가지쇼 21:00 Live on M(SMS)

스포츠·레저

- MBC스포츠플러스 6:00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8:00 2015 메이저리그 11:00 2015 메이저리그 12:00 2015 메이저리그 14:00 2015 메이저리그 16:00 2015 메이저리그 18:00 메이스볼 NOW 18:30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22:00 메이스볼 투나잇 23:00 메이저리그 투나잇

- SBS스포츠 7:40 EPL 다이제스트 8:30 마이리플 헤이파이트 9:00 15-16 UEFA 챔피언스리그 13:00 제 회 매경닷컴배 전국직장 대항당구대회 14:00 경물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17:00 2015 메이스볼S 18:10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22:00 2015 메이스볼S

- 온스타일 7:00 더바디쇼 8:00 달콤침초 9:00 NEW솔드아웃 10:00 스타일 라이브 11:00 살아보니 어때? 12:00 갯이투데이2015 12:10 갯이투데이2015 14:10 살아보니 어때? 15:45 갯이투데이2015 16:50 로맨스가 더 필요해 19:00 오늘 뭐 먹지? 19:00 My Med Fat Day 2 20:00 살아보니 어때? 21:00 갯이투데이2015

뉴스·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들의 시사토크 20:15 YTN 24 21:00 뉴스인만 22:00 뉴스 10

- 한국경제TV 8:00 출발 중시 특급 10:00 마켓퍼커스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성공투자 오후 중시 16:00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에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활속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라탄 성공취업 20:30 파워인터뷰 The CEO 21:00 정외주식 사투쟁구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8:00 <괴수 워리아> 어미존의 괴물 야라파야마 9:00 나는 자연인이다 10:00 건강강아지 메디컬365 11:0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1) 13:00 아프리카 들개의 일생 14:00 야생의 사관 15:00 나는 자연인이다 16:00 TV 동물농장 19:00 <와일드 헌터> 1부. 아프리카 최상위 포식자 20:00 나는 자연인이다 21:00 사이언스 오브 스투피드

음악·애니

- MBC 뮤직 7:00 MBC MUSIC HIT SONGS 10:00 슈퍼 아이돌 11:30 2015 DMC 페스티벌 파이널 콘서트 상임에서 놀자 13:30 아이돌 스타그램 14:30 쇼 음악중심 16:00 WEEKLY HOT MUSIC 17:00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 17:30 복면가왕 19:00 Show Champion

- 애니맥스 6:00 5부작원래-카고와 테라르 7:00 보이스터 9:00 해피하모니 다마고치 10:00 코코몽3 10:30 유우와 친구들 3 11:30 꼬마버스 타요 3 12:00 보이스터 13: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14:00 라바 인 뉴욕 15:00 헬로 카봇2 16:00 퓨처 카드버디파트1 17:00 보이스터 18:00 검정고무신 4

- JET 재능방송 5:00 Roly Roly, Show me the Story 6:00 시크릿 쥬쥬3기 7:00 앵그리 버드와 친구들 7:30 똑똑탐험대-카고와 테라르 8:00 출동! 케이간 9:00 뽀롱뽀롱 뽀로로 10:00 Backyard Science 11:00 꼬마버스 타요 3 12:00 매일 얼마? 13:00 바이올론즈 14:00 블레이징 팀스 레전드 전사 15:00 라바 시즌3 Part.3 16:30 헬로 카봇2



KT&G 중앙연구원, 행복누리재단에 성금 기탁 KT&G 중앙연구원(원장 박재민)은 15일 유성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성금 1500만원을 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에 지정기탁했다.



한남대체육부 학부모대학발전기금 350만원 기탁 한남대 체육부선수들의 학부모들이 15일 학교측에 35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목원신문 창간 60주년 행사 개최 목원대학교(총장 박노권)는 15일 오전 10시 시립관(U) 408호 강의실에서 <목원신문 창간 6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덕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이서형)는 15일 관내 대전자모원 등 사회복지시설 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위문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산 '드림세탁기' 드림연주동아리 공연 펼쳐 청양군 정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중호) 소속 드림연주 동아리 '드림세탁기'(회장 유범식)가 지난 12일 정산시장 주차광장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림연주 공연을 가졌다.



삼성동세마을부녀회명절음식 나눔행사 대전동구세마을부녀회(회장 신은옥)의 삼성동세마을부녀회(회장 류형희) 회원 10여명은 지난 14일 추석을 맞아 관내 부자가정 20가구를 선정 회원들이 직접빚은 송편과 돌김치를 정성스레 만들어 전달했다.

9월 19일 오후 4시 공주 계룡산 상신 마을에서 개최 '신야도원 전통주 축제 연다'

신야도원 전통문화마을협의체가 주최하고, 캠(CAM)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신야도원 전통주 축제가 2015년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계룡산 상신 마을에 있는 신야도원 전통문화마을센터(옛날 상신초등학교 자리)에서 개최된다.



신야도원 전통주 축제에 오면 가가호호(家家戶戶) 각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주의 맛을 그대로 살려 정성으로 빚은 맛있는 술을 맛볼 수 있다. 상신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송곡마을 주민까지 참가하는 이날 전통주 축제에 술의 종류와 참가자들을 소개하면 국화주(이희순), 더덕주(김금예), 새매주(윤창원), 이가주(이범식), 신소주(성명순), 청솔주(김진필), 시내주(윤순복), 솔잎주(성한모), 퉁구주(장현옥), 큰샘주(윤희순) 등이다. 계룡산 상신마을 · 신야도원 전통주 축제에서는 지역심사자 10명과 전문가 심사자 6명 그리고 고문객들의 의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의 술을 뽑는 품평회도 열릴 예정이다. 신야도원 전통주 축제의 개막 공연과 품평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김미경 전주대 연구교수가 진행하는 인문학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은 특별히 멀리 경남 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진주 오광대' 공연팀이 찾아와서 재미난 탈춤과 사설로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해학과 웃음이 함께 하는 '진주 오광대' 공연은 오후 7시에 신야도원 전통문화마을센터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부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 전통주의 진정한 맛과 진한 향기를 계룡산 상신마을의 맑은 가을하늘 아래서 느껴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 신명나는 신야도원 · 전통주 축제! 바로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행하는 인문학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은 특별히 멀리 경남 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진주 오광대' 공연팀이 찾아와서 재미난 탈춤과 사설로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해학과 웃음이 함께 하는 '진주 오광대' 공연은 오후 7시에 신야도원 전통문화마을센터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부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나라 전통주의 진정한 맛과 진한 향기를 계룡산 상신마을의 맑은 가을하늘 아래서 느껴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 신명나는 신야도원 · 전통주 축제! 바로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왕전초, 학부모뉴스24 업무 협약 체결

학부모뉴스24(발행인 채재학)와 충남 논산 왕전초등학교(교장 운영)는 14일 오후 3시 왕전초 과학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실정의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 표현력 신장을 위한 교육 활동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협력,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와 직업 탐색 교육 인프라 교류,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및 인적, 물적 자원 협력 및 정보 교환,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한대수기자



한밭대, 북대전세무서와 관학협약 체결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와 15일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밭대와 북대전세무서가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대학의 현장실습과 신고서비스 지원 ▲관학 협력 위·수탁 교육 ▲양 기관의 보유시설과 기자재 공동 활용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밭대는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북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과 관련된 현장실습을 수행하면서 취업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이명현 대전보훈청장, 특수임무공자회 무료급식day 행사 참석 15일 오전 12시 특수임무공자회 대전지부(지부장 양희정)에서 주관한 「지역봉사단체와 함께하는 무료급식 day」 행사에 참석했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전문치료금연캠프 입소식 가져 '한방으로 금연하는 전문치료금연캠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오민석)은 15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전문치료금연캠프 입소식을 가졌다. 입소식에는 오민석 병원장을 비롯해 안우상 센터장, 조종식 교수, 캠프 1차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달 동안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캠프는 세종금연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해 4박 5일간 입원치료를 실시한다. 이 캠프 참가자는 입원치료 전역을 무료로 지원받으며, 전문적 금연 치료를 위한 집중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한방 치료와 함께 병행해 성공적인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신동아건설주, 지역에서 받은 사랑 지역민과 함께 예산군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대표 이인찬)가 14일 예산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쌀 60포와 라면 20박스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예산지구 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면서 축하 화환을 대신해 받은 물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고, 군은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문화재단 대표 브랜드공연 GREAT TO SEE YOU:그랬슈~ 콘서트 최근 충남에 흥미로운 국악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청양에서 진행된 'Great to see you: 그랬슈콘서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연이은매진과 만석 행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동정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토론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 16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16일 오전 10시 30분 예산상설시장에서 열리는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오후 5시 30분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서 열리는 '충남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대의원 워크숍'에 참석.

세종시 채용 박람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1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세종시 채용 박람회'에 참석.

역량강화 연찬회 한재득 대전광역시새마을회 회장 = 16일~17일 경남 통영군호마리나리조트에서 사회장단 및 구회장단·동회장단 등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연찬회 주관.

서산 한서대, 남이공 노스웨스트주지사 초청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주 마후마페로(Supra Obakeng Rameolets Mahumapelo) 주지사 일행 5명이 15일 한서대 합기선총장의 초청으로 내한했다. 노스웨스트주지사 일행은 9월 17일까지 나흘 동안 한서대 비행교육원을 비롯한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태영세라믹, 유양디엔유, 일신화학, 동우에니메이션 등 한서대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분야를 모색한다. 한편, 한서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자매대학인 노스웨스트대학 봉사단원들과 함께 노스웨스트주 로킹캠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투 논란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량실직 막아낸 설 교육감의 결단



한 대수 편집국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대량실직의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영어회화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273명의 영어회화 강사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는 일단 한고비를 넘겨 됐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은 설동호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영어회화의 경쟁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영어의 조기교육과 해외연수나 유학을 통해, 학부모들이 기계부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영어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설동호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박수를 보내지만 항구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도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대량실직사태를 막아낸 설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하는 논평을 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237명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대량실직 위기를 막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희철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지난 11일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영순)의 민생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설동호 교육감과 17명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설 교육감은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237명의 대량해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당시 1인당 3백만원의 4대 보령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수립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영했다. 이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운)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설동호 교육감체제가 출범한 이래,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교육계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희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도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도는 '영어회화 전문 인력의 현장 투입으로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라는 국가의 목표와 정책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뿐만 아니라 원어인 영어 보조교사의 처우에 비해서도 차

별적이다."고 지적했다. 설동호 교육감의 이번 결단은 지난 간담회에서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젊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간절한 외침처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에 더 귀와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앞장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서희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와 의의는 설 교육감이 직접 교육분야의 민생현장을 행했다는 점이며 교육계 약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대전시의회 송대운 교육위원장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4대 보령료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켰다는 의의와 함께, 고용불안 해소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혀 설동호 교육감의 극약처방에 힘을 보탤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보육예산과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으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누리과정이나 영어공교육 실천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구의 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전 동구가 역점적으로 운영하던 국제화센터(영어마을)가 문을 닫은 이유도 재정악화 때문이다. 동구는 그동안 영어마

을 건립비와 운영비 등으로 모두 109억원을 썼다. 전국에 영어마을 건립 바람이 불자 대전 동구도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추진했다. 당시 이장우(현 새누리당 의원) 동구청장은 지역 초등학생에게 원어인 강사가 가르치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 기회를 주자며 건립에 나섰다. 건립에는 63억원이 쓰였다. 동구가 구 예산 16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여기에 운영체제인 ㈜웅진싱크박이 47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동구는 재정의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분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 교육감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실직위기를 구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치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주문한 서희철 새정치 대전시당 대변인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의 일괄적인 교육예산의 운용도 문제지만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학교 비정규직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가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서 대변인의 논평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바가 크다.

기고

축제를 기본종게 즐기려면



전 민욱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9~10월은 가히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 곳곳에서 가을맞이 축제가 개최된다. 그중 논산에서 개최는 축제는 9월 19~20일 개최되는 상월 고구마 축제, 10월 2~6일 개최되는 계룡 군문화축제가 있다.

5만명 이상이 찾는 제7회 고구마 축제는 아늑한 청정 계룡산 산자락에 자리한 금강대학교내 축제장에서 고구마 캐기, 고구마 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 군고구마, 고구마 튀김 등 무료시식, 다채로운 공연이 이루어지고, 연 100만명 이상이 찾는 제13회 계룡 군문화 축제는 국방 휴양의 도시 계룡시에서 비스할주로 행사, 시가 퍼레이드, 군악대·의장대 공연, 위문 열차 공연 등 독특하고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질서유지와 방범활동을 펼쳐야 하는 경찰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축제장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쉽게 분위기에 빠져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유발하는 장소에서는 확성기의 높은음이 발생, 주변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한 다. 더욱이 행사에 몰두하다 보면 흔히 있는 신체적인 가벼운 부딪침은 물론이고 자동차 출입문이 도구에 의해 무단으로 열릴 때 발생하는 경고음 소리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축제장의 혼잡함을 틈타 소매치기와 자동차 내의 귀중품 도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축제장 방문시는 최소한의 현금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는게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을 덜 수 있다. 귀품 및 지갑은 내용물이 없어도 해도 쉽게 노출되기 쉬운 바지 뒷주머니나 상의 주머니에 넣지 말고 옷 속 깊숙이 넣거나 여러곳에 나누어 보

관하는게 좋다. 또 핸드백이나 크로스백 등은 몸 앞쪽으로 메는 게 날 치기를 당할 확률이 적고 수시로 지퍼가 열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탈이 예방역시 차량의 문의 잠겼는지 재차 확인해보고 차량내 보이는 곳에 귀중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축제장 주차장의 수많은 차량 중에 범행의 대상을 고르자면 당연히 차량밖에서 보았을 가방, 카메라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는 차량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은 가급적 트렁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축제를 기본종게 즐기려면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한 내용처럼 각자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고

즐거운 추석은 안전한 운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환 이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이제 찬바람이 살랑거리며 무더위가 떠나가고 있는 9월, 국가적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씩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기쁨과 설레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명절기간 동안 매스컴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교통은 편리함과 동시에 속도를 내어 이동할의 도구로서 주변 차량의 위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만 더 안전 운전 하였던면 명절에 가족과 즐겁게 보낼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추석 연휴 이동인원은 3,523만명(하루 평균 587만명)으로 전년 3,037만명(일평균 607만명)대비 2.8% 증가하였으

며,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1,771건이 발생해 전년(2,860건) 대비 38%, 사망자는 52%, 부상자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난해 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감소한 배경에는 버스전용차로제·임시차길차로제 등 고속도로 및 각 지역별 주요 혼잡구간 등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하여 교통소통근부와 더불어 교통상황 방송 및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하여 귀성 및 귀경시간대를 분산시킨 점도 일조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교통소통을 위한 일환 노력과는 역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운전자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더불어 가족, 친지 등과의 음주·과음으로 인해

속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와 상대방 가족의 행복한 추석 명절이 불행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교통운전을 습관화 하도록 모든 운전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추석에는 곡식을 수확하면 감사의 뜻으로 조상님께 먼저 햇곡식을 올리는 천신(薦新)을 했는데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도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즐거운 추석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 차량을 장기간 이용함에 따라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경에도 심하지만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하는 마음이 행복을 맞이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사설

김치 종주국의 수치

한국의 김치가 세계시장을 점유해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아니라 김치수입 종주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김치를 좋아하며 그래서 김치 맛도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른 만큼 김치의 종류도 다양하고 김치 없이는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김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김장김치를 집집마다 수백포기씩 담가서 장독대에 물어 두고 늦가을부터 봄까지 김치 반찬, 김치 국, 김치찌개, 김치전을 해먹을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러한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 해다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내놓고 중국산 김치를 수입 해다 판매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웬만한 대중식당도 중국산이 태반이다. 식당의 음식차림표에도 중국산을 버젓이 적어놓고 지역 업체를 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김치 종주국의 수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무리 문벌이 가 좋고 편하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담아 먹던 김치마저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의 입맛, 손님의 입맛은 무시한 채로 수입산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김치종주국의 수치이자 오명이다. 김치종주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인사나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김치를 먹고 한국의 김치 맛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종주국의 체통을 세워야 한다.

가장 많았고 '미표시'(80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부적합 건수도 2011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사용제한 색소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의 맛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의 장류를 소개한다. 그리고 김치찌개나 비빔밥과 불고기 등 다른 음식을 소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김치문화는 강조해온 우리나라 전통 김치가 수입산이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그 종주국의 위치가 흔들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다. "국내 김치 가격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감자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중국산 김치는 2000억원인데 반해 수출은 고작 2000만원 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렇고도 우리가 과연 김치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부와 수입상,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내산 김치의 중저가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국집이나 일반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는 중국산 김치처럼 만들어서 유통판매를 하더라도 중국산 김치의 대량유통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김치종주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지적한 중국산 수입김치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대로 "최근 식약처가 김치를 검사할 때 서류 검사 비중을 높이고 정밀 검사·무작위 표본 검사 비중을 줄였다"며 "수입 김치의 안전성 검사를 정밀성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다. 또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 정부와 김치 생산업자의 중저가 김치판매라인 조성과 요식업체의 의식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다른 외국인은 고사하고 중국인에게 맛있는 우리김치를 권하지 못하고 중국산 김치를 관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막기 위해서도 말이다. 국산김치를 장려하고 나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정밀 검사 및 통관 절차 등 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이다. 김치종주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인사나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우리나라 김치를 먹고 한국의 김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또다시 방문하고 한국 김치를 수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종주국의 체통을 세워야 한다.

최근 2년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데 반해 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0만원으로 턱없이 미미해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종주국의 수출은 고사하고 아예 수입국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저가 중국산 김치의 공습이 이어지면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의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총 2천569억원(2013년 1천363억원·2014년 1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2천30만원(2013년 13만원·2014년 2000만원)에 그쳐 수입액이 수출액의 1만2천66배에 달했다. 이처럼 저가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도 최근 5년 동안 약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346건에서 2012년 778건, 2014년 1천15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표시'(3444건)가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Event. Title: 오늘의 사사. Includes events like '2009년, 김기선(고려대) 유류오염 실험 승려 임명' and '1987년, 서울지하철 2호선 용곡역구간 개통'.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외무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체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말로하는전화

1636 누르고 목청꿀 을 말하세요

주문상담 080-1111-0000

NATURAL KOREA 네츄럴코리아
NAVER 네츄럴코리아
www.naturalkorea.net



천연야생꿀 목청

Natural Honey 100%



YouTube '목청꿀' 채밀영상



네츄럴코리아 천연야생꿀 목청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시림의 수 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합성되어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캄보디아의 원주민 사이에서도 '신비의 꿀'로 알려져 있으며, 진귀한 천연야생꿀 목청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한정된 수량만을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2400g 특별행사가
675,000원 → 472,000원



1200g 특별행사가
345,000원 → 240,000원

『동의보감의 꿀』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풀 뿐 아니라, 온갖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험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로
고품질의 안전한 꿀 인증



네츄럴코리아 목청은
100% 천연야생 꿀입니다



원시림의 수많은 꽃에서
얻어지는 꿀과 고목나무의
수액이 합성된 '목청'



건강과 활력을 위해
아침, 저녁 공복에
꾸준히 복용하세요